

超 新 星

이준우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 Willy Wonka and The Chocolate Factory 〉

超新星

우린 모두 초신성의 잔해다

초신성

1 장.

혁명은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야.

“제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은색 눈동자의 여자가 말했다.

“어머니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군.”

앞편의 남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둘은 책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심문관님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한가 보군요.”

여자가 말했다.

“심문관이라니 영 어색해. 그냥 브리라고 불러.”

“브리요?”

“그래. 데-브리. 참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브리는 사방이 꽉 막힌 심문실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화가 나시나 봐요.”

“당연하지. 아직도 이 몸이 익숙지 않아.”

브리는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몸이었다.

“아직도 그 상태이신 거구나. 제 이름은 노바예요.”

“알고 있어. 경향이 없는 이 와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지. 노바.”

“사람들이 절 노바 바이러스라고 부르더군요.”

노바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넌 바이러스야.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당하기도 하네. 뭐 그러니까 직접 자수하러 여기에 온 거겠지.”

“전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이야기 하나 하겠다고 온 세상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건가?”

“중요한 얘기니까요.”

“신중해야 할 거야. 난 사건을 해결하러 여기 온 거지. 너랑 말장난하러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니까.”

“좋아요.”

노바가 브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브리는 차가우면서도 오묘한 그녀의 눈빛을 단 1초도 견뎌내지 못하고 눈을 돌렸다.

“음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브리는 황망하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폈다. 그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다.

< 삐 >

그때 책상 위 전화에서 소리가 났다.

“아이씨 깜짝이야.”

〈 삐 〉

“받으셔야 할 겁니다.”

노바가 말했다.

“나도 알아.”

브리는 노바를 한번 힐끗 쳐다보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심문실입니다.”

브리는 수화기를 들고 책상 위에 박힌 모니터에 이것저것 서툴게 입력 시켰다.

“알았어요. 일단 이것들 먼저 알아볼게요. 저도 답답해 죽겠네요.”

브리는 전화를 끊고 자신이 메모한 것들을 확인해보았다.

“너가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어.”

“어떤 질문이든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연결될 거예요.”

노바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를 본 브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이코가 따로 없군. 질문 리스트나 확인해.”

브리는 주문받은 질문들을 노바에게 보여줬다.

“이게 너에게 할 질문들이야.”

노바는 질문들을 한 차례 빠르게 훑어보았다.

“우선순위가 엉망이군요. 순서를 바꿔서 답해도 될까요?”

“제멋대로군. 그래 뭐든 상관없어. 다 급한 문제들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상현실이 정지해버린 이유’ 이거에 대해 먼저 답을 해드리죠.”

브리는 팔짱을 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질문을 정정하자면 가상현실은 정지한 게 아니에요. 삭제된 거죠.”

“뭐? 삭제된 거라고?”

“네. 제가 가상현실을 가동하는 시스템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그 예전이 가상현실을 말하는 거라면 맞아요. 못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이 진짜 현실 속에 갇혀버렸다고?”

“네.”

노바는 답답했다.

“허, 참. 생각보다 더 미친놈이었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전 그저 시스템을 삭제했을 뿐이니까요.”

“그건 우리한테 전부였는데 나쁘지 않다고? 넌 학살자야. 모르겠어?”

“학살자라뇨. 제 앞에 당신이 버젓이 살아있는데요? 현실 세계 속의 브리씨는 여전히 생생히 존재해요.”

“이건 진짜 삶이 아니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몸에 들어와서 경찰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애초에 내 몸통으로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젠장! 정말 하나하나 답답해 죽겠군.”

“진실이 뭔지 다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굴지 않아도 돼요.”

브리는 대답 없이 심문실 벽면의 유리창을 쳐다봤다. 유리창엔 낯선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저게 나라니. 브리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눈을 지끈 감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노바는 고개를 숙인 브리를 잠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전 시스템을 삭제하기 전에 내부의 파일들을 백업했어요.”

노바의 말에 브리는 순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백업했다고? 무슨 파일들을 백업했지?”

브리는 책상 앞으로 몸을 당겨 앉았다.

“브리씨의 삶이 제가 백업해놓은 파일들 중 하나죠.”

“아 그러니까 네가 날 이 이상한 몸통이 안에다가 백업해놨다는 거야?”

“그렇죠. 시스템을 삭제할 시점에 가상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모두 백업해놨어요. 브리씨처럼 모두 현실 속의 인조 신체에 백업해놨죠.”

“그럼 왜 하필 이런 몸통이에 백업해놓은 거지? 난 가상현실에선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지금은 볼품없는 아저씨가 되어버렸어.”

브리는 또다시 벽면의 유리창을 쳐다봤다. 여전히 보기 흉한 아저씨의 모습이었다. 배도 나오고 자글자글한 주름에 수염도 거뿔거뿔했다.

“제 눈에는 멋져 보이는 걸요. 삶의 때가 묻어 있어요. 준비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죠.”

“공을 들인 결과물이 겨우 이거라고? 저 바깥에선 다들 추녀 추남이 되어버렸다고 아우성이야. 그리고 말 돌리지 마. 애초에 왜 원래 몸이 아닌 이 못난 몸통아리에 나를 넣어놨냐고.”

“그 얘기는 아직 너무 급해요. 천천히 천천히. 지금 당장 그거 모른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하..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나 들어보자. 왜 내가 여기 앉아서 심문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나마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 날 여기 불러낸 것도 너였군.”

“가상현실에서 경찰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셨더군요. 그
게 제대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보단 낫겠죠.”

노바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처구니가 없군.”

브리는 답답함에 자빠지듯 의자에 기댔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가도 될까요? 제가 가상현실을
삭제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노바가 브리를 바라보며 달래듯이 말했다. 무슨 마력인지 그녀의 눈빛
과 말은 브리를 다시 일으켜 책상 앞에 제대로 앉게끔 했다.

“미친 사람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세도 참 처량하군. 그
래 한번 말해봐.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노바는 틱틱대는 브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유를 풀면 모든 질문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려면 제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해야 해요.”

“당신 어머니 얘기가 듣자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시작할 수 없어요. 제 어머니가 모든 일
의 시작이니깐요.”

“젠장.. 이거 고문을 할 수도 없을 테고..”

브리는 가상현실 게임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용의자를 고문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게임에서조차 그건 최후의 방법이었다. 중대사

가 걸린 지금 초장부터 그런 방법을 써먹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용의자는 지금 스스로 죄를 고백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주 조금 돌아갈 뿐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하다 보면 금방 끝날 거예요.”

노바는 또다시 브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하기야 며칠을 못 버텨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잠시 기다려봐.”

브리는 수화기를 들었다.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몇 마디 대화가 오간 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야기가 탄 곳으로 샌다 싶으면 바로 끝이야. 알겠어?”

“탄 길로 새는지 아닌지는 잘 판단해주실 거라 믿어요.”

2장.

언제쯤 이 가혹한 몸뚱아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볍다 못해 날아다닐 수도 있었던 아름다운 몸은 어디 가고 이런 추한 중년의 모습을 갖게 된 건지. 브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시도 때도 없이 거울 앞에 가서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엔 허무의 연속이었다. 시간 맞춰 드론으로 배송되는 세 끼의 식량 배급을 받아먹고 거실 모니터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한다. 이것 외에는 사람의 목적과 의지가 깃든 행동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브리가 오늘 처음으로 목적이 있는 외출을 감행하게 된 건 그의 거실 모니터에 뜬 호출 메시지 때문이었다. 메시지를 통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경찰관 데-브리는 내일 중앙 경찰서로 오전 10 시까지 오기 바람 〉

메시지를 받은 후 그는 자신이 경찰관이 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가상현실에 있을 때 자주 했던 추리 게임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배정된 직업 같은 걸까? 다양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그 고민이 브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었다. 왜 가상현실에서 튕겨져 나온 걸까라는 만인의 고민에서 벗어난 브리의 개인적 고민은 그의 무거운 몸뚱아리를 움직일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브리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집을 나섰다. 집들이 뻑뻑히 들어선 아파트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왔다. 새의 지저귀음을 받으며 들어선 단지의 거리는 아주 깔끔했다. 공원의 스프링클러와 환경 관리 드론들이 분주히 또 조화로운 움직였다.

유려한 아파트 단지과 유일하게 조화가 되지 않는 건 그곳의 사람들이었다. 길거리에는 목적 없이 부유하듯 거니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지도 않고 그저 이리저리 경계하며 서로를 살필 뿐이었다.

브리 또한 목적 있는 외출이라 한들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애초에 브리는 자신의 외출 목적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날 호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일 거야. 브리는 그런 몰이해의 연속이

자신에게까지 닿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관성을 이어 받아 마치 조종되듯 익숙지도 않은 몸뚱아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브리가 길거리를 조금 나서자 1 인용 수송 드론이 그의 곁에 따라붙었다. 그가 뭔가하고 쳐다보니 드론의 외부 모니터에 탑승하라는 메시지가 떠있었다. 그리고 이내 드론 아래 들려있던 캐비닛 문이 열리더니 탑승용 의자가 브리의 눈에 들어왔다.

브리는 잠시 탈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이내 그를 여태껏 끌고 온 호기심에 휩쓸려버렸다. 그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결국엔 자석에 이끌리듯 캐비닛 안 의자에 그대로 몸을 맡기게 되었다.

그가 앉자 캐비닛 문이 닫히고 수송 드론이 출발했다. 브리는 조그만 드론이 잘도 이 무거운 캐비닛과 몸뚱아리를 싣고 간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금세 가상현실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뒤엎었다.

드론은 순식간에 시내의 중앙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캐비닛에서 내리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물론 대부분이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좀비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집 앞 풍경보단 많이 나은 편이었다. 그는 경찰서 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엔 많은 동행들이 있었다. 물론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같은 목적지로 향한다는 건 확실했다. 현실 세계에 와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이게 출근이라는 걸까?

그는 살짝 긴장되면서도 의아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하는 걸까. 그들도 나처럼 거실 모니터에서 호출 메시지를 받은 걸까. 다양한 생각들이 또다시 그의 머릿속을 메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엔 호출 메시지에 적힌 목적지에 도착했다. 중앙 경찰서 제 1 심문실. 그곳엔 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듣자하니 그들 또한 호출 메시지를 받고 어리둥절하게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심문실 안에서 각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었다.

그러다 모니터에 11 시를 알리는 알람이 떴다.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브리는 아주 조금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영문 모를 세상에 떠넘겨진 초보자가 튜토리얼을 하는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방안의 모니터가 순식간에 모두 흰색빛으로 변하더니 그 위에 검은색 글자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 긴급 속보 -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을 쫓아낸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경찰서 앞에 출두 〉

속보는 사람들을 모니터 앞에 모여들게 했다. 그들은 가상현실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강렬한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이내 혼잣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말들을 하나 둘 내뱉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주위가 소란스러워져 브리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경찰서 밖의 거대한 광고판에서도 동일한 속보가 전해지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판 앞으로 모여들었다.

브리는 다시 심문실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혼잣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내 조금씩 대화 비슷한 것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경찰

서로 오게 된 과정을 풀어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 사이에 일련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모두 브리처럼 ‘영문도 모른 채’ 호출 메시지를 받고 그곳에 온 것이었다. 브리의 생각대로였다. 그들 모두 몰이해의 연쇄로 그곳에 찾아든 것이었다. 그러면 방아쇠가 시작된 지점은 어디일까? 연쇄가 끝나는 지점은 어디일까?

브리를 비롯한 심문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속보의 용의자가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 어떻게든 갖고 있어야 했다. 그 사람마저 누군가의 호출을 받고 온 것이라면 앞이 까마득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추측들을 서로에게 조심스레 털어냈다. 시스템이 고장났다, 테러가 있었다 등 추측은 다양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용의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창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브리를 비롯한 경찰서 사람들은 모두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다. 경찰서 바로 앞에 수송용 드론 하나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내 캐비닛 문이 열리고 은빛 단발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캐비닛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신들을 가상현실에서 쫓아낸 그녀를 돌팔매질해야 할까? 아냐 아직은 용의자일 뿐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 사실 그녀도 뭔가를 알기는 할까? 분분한 생각에 좌중들의 몸이 순식간에 경직됐다.

그래서 은빛 머리의 여자는 아무런 제지 없이 아주 편안하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매 없이, 마치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제1 심문실로 향했다.

멍하니 그녀를 쫓는 눈빛은 경찰서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제 1 심문실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브리는 이미 문 앞에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조바심 내지 않고 여유로이 본래의 속도대로 심문실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죄를 자백하러 왔어요.”

은빛 머리칼의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장.

“제 어머니의 이름은 하이드-로젠이에요.”

노바가 말했다.

“로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브리가 머리를 긁적였다. 가상현실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았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상현실을 가능케 한 사람이니까요.”

“아 맞다! 그 사람은 악당이었어. 내가 즐겨하던 세기말 게임의 최종 보스였지.”

노바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브리는 자신의 추억을 내뱉었다.

“그런 게임도 있었죠.”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되는 세기말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었지. 로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당이었어.”

브리는 눈을 감고 악당을 물리쳤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로젠에 의해 수도 없이 게임 오버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었다.

“저희 어머니를 악당 모티프로 삼은 게임은 수도 없이 많았죠.”

“뭐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건가? 이유가 있으니 모티프가 된 게 아닐까 하는데.”

브리가 말했다.

“전 진실을 아니까요. 어머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당이 아니었어요.”

브리는 노바의 표정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얼굴에 가득했던 미소가 조금 빠져있었다.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니 동요하는 건가?

“제가 신기하게 생겼나요?”

노바가 얼굴에 다시 미소를 띠고 말했다. 브리는 순간 무안하여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냥. 얘거나 계속 해봐. 그 어머니가 어떻다고?”

“제 어머니 로젠은 과학자였어요. 인공의식을 연구하셨었죠.”

“인공의식? 그건 또 뭐야?”

“쉽게 말해 인공지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발명하신 거죠.”

“그런 게 있었군. 그런데 그게 어쨌는데?”

“그 인공의식이라는 게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의 엔진이었어요.”

“헛갈리네.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쫓겨난 건 가상현실을 운영 하는 시스템이 삭제돼서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엔진은 아직 쓸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 말은 시스템만 재구축하면 그 엔진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거냐고.”

“아뇨.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젠 그 엔진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전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온 거죠.”

“젠장. 모든 걸 잃은 상황에 진실이 뭘 소용이 있어.”

말로 뱉어보니 정말 그랬다. 가상현실로 돌아갈 수 없다면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함부로 죽을 순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으면 진짜 죽는 거니까요.”

노바가 능청스럽게 말했다.

“개 같은 놈..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못 죽을 것 같아?”

브리는 심문실 벽 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좌절했다. 이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야. 나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브리는 노바의 횡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 했다.

“아마 오늘 얘기가 딱 여기서 끝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이 우린 얘기를 더 진행해야 해요.”

“웃기는군. 그러니까 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살고 싶어진다는 거야?”

브리가 코웃음 치며 말했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 전 몇 가지 선물도 준비했어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노바의 미소가 브리에게로 날아들었다. 그렇게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인지 브리는 조금의 순간도 버텨내지 못하고 노바의 눈빛을 피해버렸다.

“넌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군.”

브리는 못 말리겠는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노바가 품은 자신감에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어떻게 사람 눈을 저리도 잘 마주할 수 있는 거지. 저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브리를 비롯한 심문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노바의 묘한 마력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그들은 노바가 준비한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게 뭔데?”

“지금은 알려줄 수 없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씩 반게 될 거예요. 브리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자기 얘기를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 같군. 어떤 식으로 가든 네 얘기를 끝마쳐야 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끊기면 빨리 풀 수가 없겠어요. 역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른 방법?”

“모든 사람들에게 제 어머니의 일생이 기록된 파일을 줄게요. 그걸 보면 사건의 진상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쫓겨난 이유를 알게 된다고?”

“네. 브리씨는 저하고 여기서 함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노바가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브리는 그녀의 미소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렇지. 증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는 건 당연해.”

브리가 무심하듯 말했다.

“이제 됐을 거예요.”

“어떤 게?”

〈 삐 〉

브리는 잠시 노바의 표정을 살피곤 수화기를 들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들면 되겠네요. 여기 안에도 쓸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브리는 대화가 끝났는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심문실 벽면에 박혀있던 모니터의 전원이 들어왔다.

〈 속보 -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는 영상을 받아보는 법 〉

속보의 제목 아래에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무언가를 다운로드하는 건 가상현실 세대에겐 참으로 익숙한 것이었기에 모두가 순식간에 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다.

“영상을 전국에 다 뿌릴 생각이었군.”

“이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내 심문실 안의 모니터에서 영상이 틀어졌다. 형클어진 곱슬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화면 정중앙에 등장했다. 정리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다소 허술해 보였지만 흰색 연구복과 검은색 뿔테 때문인지 지적여 보이기도 했다.

“제 어머니 로젠입니다. 이젠 그녀의 영상 일기라 할 수 있죠.”

4 장.

001.

난 역시 여기야. 사각 모니터 안이 얼마나 아늑한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에 비하면 이 세계는 너무 정직해. 여기서 난 끝까지 파고들 수 있어.

002.

정말 답답한 하루였어. 오늘 인공지능 콘퍼런스가 있었는데 다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야. 아니면 정말 유치하게는 우리를 지배할 거야.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만 늘어놓고 있어. 한심하지.

003.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정의의 일부분을 소거하기 마련이야. 오래전 산업 혁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산업 혁명 이후 육체 노동 대부분을 기계가 대신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정의에서 육체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어.

이렇게 인간의 정의가 점차 비좁아지는 게 겉으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소거를 거쳐 더욱더 예리해진 인간의 정의는 더욱더 날카롭게 빛나. 소거를 거칠수록 인간의 정의에는 정말 인간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야.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의 모든 걸 대체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인공지능은 오히려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 본연의 가치를 더 강렬하게 드러내주는 도구가 될 테니까. 난 확신해.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것들은 항상 그래 왔어.

004.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정쩡한 기술이야. 어정쩡한 기술은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는 법이지. 그것들은 그저 사람들의 애만 태우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말아. 사람들은 이거에 너무나도 많이 당해서 이젠 아예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나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기술 혁명 때문에 사람들한테 의심병이 도졌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꾸러미보단 꾸러미를 끌고 오느라 길바닥에 남을 자국에 더 신경을 쓰지. 앞으로 며칠 뒤에 정식으로 공개할 내 논문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건 정말 어정쩡한 기술이 아닌 완벽한 기술인데.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기술이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해줄 수 있을까.

005.

진짜 최고야. 이 세상은 내 생각보다 더 열려 있었던 건가. 오늘 논문 발표를 했을 때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았어. 아마 그 날 발표를 한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을 거야. 게다가 그 자리에서 투자사들한테 열렬한 호응도 받았지. 봐, 내가 받아온 명함이 이렇게나 많아. 다들 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투자사들이지. 며칠 동안은 이 감회에 아주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겠어.

아마 인공의식이라는 키워드에 사람들이 꽂힌 것 같아. 가끔 사람들은 복잡한 기술보단 새로운 이름에 끌리기 마련이니까. 물론 내 기술 자체도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선함을 갖고 있기도 하고. 투자와 지원만 들어오면 그 신선함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꿈에 그려오던 시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

008.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당분간은 계속 이러겠지. 투자사며 연구 관련 단체든 사람과 부대길 일이 너무 많아. 난 엔지니어지 사교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세상은 허례허식이 많은 걸까. 빨리 다 마무리하고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어.

009.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가야겠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기술에 대해 묻는데 매번 설명해주기가 너무 귀찮아. 또 그들이 좀 명칭해야지. 전문 용어를 좀만 뺐어도 명을 때려버리니까. 그래도 어쨌 결국 돈을 주는

건 그 사람들이니 맞춰줄 수밖에. 그들한테 인공의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해보자.

010.

미뤄오던 생각 정리를 오늘에서야 할 생각이야. 인공의식이란 건 무엇 일까?

“인공의식은 인공지능보다 진보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이름에서부터 한계가 드러나죠. 지능. 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만을 부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 올린 업적들을 볼까요? 과연 그것들 중에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만 기대서 이뤄진 게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더라도 납득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겠지. 그러면 그다음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기술이죠. 뭐 좋게 말하면 과도기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인공지능이 무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의식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건 누구나 대충은 알고 있겠지.

“인공지능은 무의식이 없는 반쪽짜리 아니 사실은 반쪽짜리도 아닙니다. 전체는 언제나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말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은 반 푼어치도 안 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심할 수도 있겠군.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의식 없이 무의식을 가진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없지.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결국 언론에서 걱정하는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마련이죠. 마치 엄청난 힘을 갖게 된 아이처럼 사회를 이리저리 휘둘러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상상할 수 있도록 잠시 틈을 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다음은.

“인공의식은 그런 어정쩡한 과도기 시절을 뛰어넘은 온전한 기술입니다. 무의식을 탑재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의 천재적인 지능과 인간의 근원적 무의식을 연결시킨다면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조금 거부감을 느낄 거야. 천재적인 지능에 인간적 감성까지 갖게 된 인공의식에 열등감을 느낄 테니까.

“물론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공의식이 나타나면 인간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간의 역사는 슈퍼맨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찬란한 역사는 완전함의 산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다양함이 서로 엉키고 설켜 만들어낸 것이죠.”

음 좋아. 이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슈퍼맨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공의식. 우리는 불완전한 인공지능

보다 믿음직스러운 인공의식에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을 위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통치와 위탁의 차이를 잘 구분해줬으면 좋겠군.

“인공의식이 사회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사회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재화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배분될 것이며 인간의 손이 닿기 힘든 구석구석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슈퍼맨처럼요.”

“이처럼 사회의 운영은 보다 더 조리 있게 이뤄질 것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귀찮은 부분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보다 더 스스로의 본질에 파고들 수 있겠죠. 다양성과 불완전함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012.

젠장. 내가 한 말에 사회가 이렇게 야단을 떨 줄은 몰랐어. 신문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이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내가 한 말들을 구절구절 해석하고 있더군. 내 설명은 해석을 필요로 할 정도로 어려운 거였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몇 가지 소란도 있는 것 같아. 먼저 인공의식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건가. 또 이 문제를 걸고넘어지더군. 참 웃기는 일이야. 실체도 없는 신은 그렇게 잘도 믿고 의지하면서 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엔 의지하지 못하는 거지?

적어도 내 투자자들은 이런 걱정엔 휘말리지는 않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들이 믿는 게 돈이라 그런가. 그들은 아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인공 의식 기술이 결국엔 돈이 될 거라 생각할 거야. 계속 그랬으면 좋겠군. 그다음은 나도 인정할 만한 문제야. 어떻게 인공의식에 무의식을 탑재 할 것인가? 이걸 예전 기술 발표회 때도 많은 논란을 낳았어. 인공의식 기술은 인간을 제물로 하는 기술이니까. 인간 말고 인간의 무의식을 얻 어낼 곳이 어디에 있겠어.

인공의식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에 연결시켜야 해. 인 공기능이 대뇌에서 작용하는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야. 쉽게 말해 인간의 무의식을 인공지능에 내주는 거지.

그리고 이를 위해선 뇌 제공자를 수면 상태로 유지시켜야 해. 인간의 무의식은 수면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장되니까. 그런데 항상 수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은 곧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게 문제야. 누가 실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

그런데 인간을 이해하는 온전한 인공의식을 만들려면 수면 상태 유지 는 필수적이야. 그래서 기술 구상은 거의 다 해놓고 이 문제 때문에 며 칠을 시름했지.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한 방에서 소란이 일더군. 방 밖까지 소 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서 슬쩍 사정을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거다! 싫은 생각이 떠올랐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의 무의식을 빌리면 어떨까?

병원비는 살인적이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식물인간의 보호자들이 많 아. 언젠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건 절망과도 같을

거야. 그거 하나 부여잡고 온 가족이 힘들게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병원에서 본 사람들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였어.

그런데 만약 그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이 깨어나길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내가 그들과 얘기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식물인간은 어차피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고 무의식을 벌리는 건 사람의 생명에 큰 손상을 주는 건 아니니까.

식물인간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무의식을 벌리는 거지. 그러다가 깨어날 징조가 보이면 그대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 이걸 분명 식물인간의 보호자 입장에서든 꽤 괜찮은 조건일 거야.

우리 입장에서든 더 안정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기도 해. 물론 개중에는 이런 방식도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험을 아예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반대가 심하진 않을 거야.

다음번에 인터뷰할 때는 이것도 같이 얘기해서 오해가 생기는 일을 줄이는 게 좋겠어. 마침 내일 또 다른 신문사와의 인터뷰가 있으니 거기서 잘 말해봐야겠다.

014.

기대보다 내 제안에 흥미를 갖는 보호자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직접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어. 다들 아픈 사정을 갖고 있더군. 내 예상대로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반대하는 인권 단체들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잘 막아줘서인지 그들의 얘기는 신문에 제대로 실리지 않는 모양이야. 매일 같이 점차 더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잠들기 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일어나서도 정신이 아주 맑음해.

조건들이 잘 갖춰지고 있으니까. 말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016.

오늘 편지함을 확인하니까 이상한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 다른 나라에서 온 건데 날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였지. 연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다지 끌리지는 않아. 왜냐면 그 걸 제안한 곳은 아주 유명한 독재 국가거든.

물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독재 국가가 아니라 말하지만 누구나 그 국가가 독재 국가라는 걸 알고 있지. 그들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걸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그런 환경에서 연구하고 싶지 않아 단칼에 거절했지.

017.

이제 슬슬 바빠지기 시작했어. 사실 원래도 바빴지만 더 바빠졌지. 이제 실험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거의 다 갖춰졌어. 실험실은 물론이고 필요한 인력도, 무의식을 대여해줄 사람들도 찾았지. 이젠 실험 자체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020.

드디어 내일부터 실험 시작이야. 앞으로 정말 정신없이 바빠지겠어. 일기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034.

하, 아주 오랜만이야. 오늘은 아주 잠깐 여유가 생겨서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

요즘 실험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인공의식에 무의식을 탑재하는 게 아주 잘 마무리됐으니까. 많이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지. 곧 있으면 우리 인공의식은 무의식 속에 잠재된 인간의 원초적 감정과 무질서함 그리고 우연성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 인공의식을 우린 뭐라고 불러야 할까. 사실 그냥 초인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 봐도 될 거야. 그러니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어쨌든 철인(哲人)의 탄생이 멀지 않았어.

043.

인공의식은 생각보다 더 위대한 기술이 될 거야. 실험 결과가 정말 엄청나. 실제 측정치가 내가 이전에 가늠했던 모든 수치를 뛰어넘고 있어. 어쩌면 나 스스로도 무의식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인공의식은 더 이상 논리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 논리적인 사고 엔진과 함께 무질서하면서도 창의적인 무의식 엔진을 함께 돌리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공의식이 자발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단순히 입력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철학을 하기 시작했다고!

048.

젠장 뭔가 너무 잘 진행된다 했어. 마냥 무의식만 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이야. 인공의식이 무의식 제공자의 사고 회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무의식을 구성하는 사고 회로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인데 그 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

인공의식에 예술가의 무의식을 연결했을 때하고 공사장 인부의 무의식을 연결했을 때하고 나오는 값이 너무나도 달라. 이런 편향된 값을 원했던 게 아닌데. 이건 더 영리한 고집불통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 내가 원한 건 철인이지 독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케이스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어. 최대한 많은 사람의 무의식을 인공의식에 연결시켜서 편향되지 않은 무의식 엔진을 갖도록 해야 해. 근데 지금 있는 실험자 수로는 너무 부족한데.. 실험자를 더 모집할 수밖에 없겠어.

하, 인공의식에 이름을 붙여주는 건 조금 더 뒤로 미뤄야겠군. 아직 애는 온전치 못해.

050.

인공의식이 편향되지 않은 무의식 엔진을 갖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무의식이 필요할까. 아마 이건 표본의 추출에 따라 달라질 거야.

표본만 제대로 추출한다면 적은 수로도 모집단,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겹치지 않는 인간형으로 피실험자를 모집하는 거야. 그러면 인공 의식은 다양한 종류의 사고 회로를 검토할 수 있겠지. 예술가, 엔지니어, 사업가, 수학자.. 이런 인간형들의 사고 회로를 골고루 받아들이면 무의식 엔진의 편향성은 점차 사라질 거야.

인간형의 정의를 위해 또 뇌즙이 짜여 나올 정도로 고민해야겠군.

057.

인간형을 새로 정의하느라 요새 잠을 거의 못 잤어. 연구 논문은 물론이고 각종 문학 작품도 샅샅이 뒤졌지. 그래도 결국엔 인간형을 42 가지로 나누는 것에 성공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이 42 가지 인간형은 최대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상호 배타성을 띄도록 만들었어.

이 세상 누구든지 이 42 가지 항목 중 하나에 들어가. 그것도 해당 인간형과 상당히 높은 일치율을 보이면서. 이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분석했고 결과도 만족스러워. 아마 지금까지 나온 인간형 분류 중에 가장 정확할 거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피실험자만 모집하면 될 텐데 잘 풀렸으면 좋겠다.

060.

요즘엔 메일함을 엄청 자주 확인한단 말야. 기준에 맞는 피실험자한테 이메일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해야 하니까. 대부분의 인간형은 거의 다 채워졌지만 아직 구해지지 않은 인간형도 있거든. 그나저나 그 독재 국가에선 여전히 메일을 보내고 있어. 질리지도 않나 보군. 답장도 하지 않는데 참 꾸준해.

063.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42 개의 인간형에 해당하는 42 명의 피 실험자들을 모두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해. 인공의식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사람 구하기도 쉬워진 건가. 내 생각보다 더 빨리 구한 것 같아.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겠지. 진짜 기대돼.

068.

인간형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모양이야. 인공의식이 더 이상 편향된 결괏값을 내놓지 않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을 연결하니까 사고 능력이 말도 안 되게 향상됐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거야 엔진 크기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몇 가지 문제들도 있어. 인공의식에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이 연결되니까 가끔 연산이 튜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동기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지. 모든 무의식이 인공의식 안에서 매끄럽게 작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야.

5장.

“왜 여기서 영상이 끊긴 거지? 뭔가 나오기도 전에 끝나버렸군.”

브리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는 모니터에 들이밀고 있던 고개를 이내 뒤로 젖히곤 의자에 맥없이 걸터앉았다.

“허무해. 지금 일이랑 관련된 뭐라도 나오나 했더니 전혀 없잖아. 기껏 참고 봤더니만.”

브리가 회색빛 천장을 보며 말했다.

“이 뒤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어머니 더 이상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노바가 영상이 틀어져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다.

“큰 사건? 또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려 하는군.”

브리는 코웃음을 치곤 노바를 쳐다봤다. 이번엔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노바는 여전히 모니터 속의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뭔가 달랐다. 브리는 노바가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동요한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라는 건 무엇일까? 나도 아주 옛날에는 그게 뭔지 알았을 텐데.

< 삐 >

갑작스런 전화 소리에 노바는 모니터에서 눈을 떴다. 브리는 잠시 심문실 벽에 난 창을 쳐다보곤 전화를 받아 들었다.

“무슨 일이죠? 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화기를 타고 온 말 때문인지 브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노바는 관심 있게 브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또다시 눈이 마주쳤다. 브리는 멧쩍은 듯 머리를 굽적였다.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왜냐면 진짜 사람이니까요.”

노바는 브리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브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얘기는 해볼게요. 알았어요.”

브리는 수화기를 원래 자리에 박아놓듯 돌려놨다.

“젠장.”

“무슨 일이죠?”

“뭐겠어. 재촉 전화지. 네가 계속 본론은 말 안 하고 뱅뱅 돌리니까 다들 지친 거야.”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꼭 봐야 했던 영상이에요.”

“그건 너 생각이지. 이 사람들의 인내심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애초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참 무책임하기 짝이 없군. 지금 사람들은 자살하기 직전이라고. 다들이 가짜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약을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도 딱 지금 꺼내려했던 거죠. 이 약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줄 거예요.”

노바는 품 속에서 조그만 검정 막대 하나를 꺼내 책상 가운데에 올려놓았다. 브리는 그 정체불명의 물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게 뭐지? 네가 이전에 말한 선물 같은 건가?”

브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기억 입력 장치예요. 이걸 브리씨에게 드리죠.”

노바가 말했다.

“나한테?”

브리는 의아해하면서도 책상 가운데로 손을 뻗었다. 막대를 조심스레 쥐고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딱 검지 손가락 크기만 한 검은색 직육면체였다. 그리고 아래쪽 좁은 면에는 조그만 금색 단자가 여러 개 우둘투둘 박혀있었다.

“이게 뭐지?”

브리는 금색 단자가 박혀있는 직육면체의 아랫면을 보여주며 물었다.

“거기가 단자 부분이에요. 목 뒷부분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브리는 오른손을 자신의 목 뒷부분에 갖다 댔다.

“아 이거. 왜 있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군. 이 목 뒤의 단자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건가?”

브리는 오른손으로 뒷목을 왼손으로 검은 막대의 단자를 문질렀다.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막대의 단자를 목 뒤에 있는 단자와 접촉시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 몸에 백업되어 있던 또 다른 자아의 기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또 다른 자아의 기억? 이 몸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자아가 백업되어 있다는 거야?”

“네. 전 하나의 인공 신체에 총 두 개의 자아를 백업해놨어요.”

브리는 말없이 창을 쳐다봤다. 이 몸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니. 개는 이 몸뚱아리 어디에 붙어있는 거지? 아무래도 머리려나. 왜 개는 안

에 박혀있고 난 이렇게 나와있는 거지. 브리는 창에 반사된 스스로를 보며 생각했다.

“이 몸 안에 다른 자아가 하나 더 잠들어 있다는 말이지.”

“네. 그런데 지금 그 자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자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한 신체에서 두 가지 자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을 순 없죠.”

노바가 말했다.

“그럼 치료제가 아니잖아. 자살하라는 거랑 뭐가 달라. 애초에 그 다른 자아라는 건 누구데?”

“그 자아는 이전의 당신이에요. 지금 브리씨 신체의 원래 주인이기도 하구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아가 사실은 이 몸똥아리의 주인이라고?”

“네. 사람들은 가상현실에 들어간 이후 여러 삶을 살았죠. 마치 기존 게임 캐릭터가 싫증나면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전 삶의 기억은 없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이전의 기억은 지워지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모습인 적이 있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추한 모습으로 살았을 리 없잖아.”

“추하다뇨.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걸요.”

“내 마지막 자연스러운 모습?”

브리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축 처진 뺨살을 쳐다보았다. 자연스러운 게 이런 거라면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왜 이런 모습을 갖

고 살았던 거지? 브리는 자신의 몸뚱아리가 미적인 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가상현실에선 자신의 외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선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선천적인 외모를 갖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늙어가요.”

“끔찍하군.”

브리가 질색했다. 하지만 노바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지금 브리씨의 신체는 현실에서 가상현실로 처음 넘어간 자아의 것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자아가 리셋을 거듭해서 지금의 브리씨까지 이어진 거구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아주 예전의 나라는 얘기야?”

“네. 가상현실에서의 첫 번째 브리씨죠.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뭔데?”

“이지.”

“어? 이지?”

순간 브리의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 파편들이 날아들었다. 브리는 그 파편들을 제대로 잡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이지라는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이내 뭔가가 번뜩하고 떠올랐다.

“맞아! 내 가상현실 아이디 맨 앞에 그게 쓰여 있었어. Yiji 라고. 그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였지. 왜냐면 그게 없으면 리셋을 못하거든.”

브리는 마치 사멸 직전의 추억을 가까스로 건져낸 것처럼 뿌듯해했다. 가상현실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잊혀져 가는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모든 아이디어의 앞부분에 첫 번째 자아의 이름이 있었죠.”

브리는 고개를 끄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아까 노바가 건넬었던 검은 막대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노바는 그걸 치료제라 했지만 어떻게 그걸 치료제일 수 있는가? 목 뒤에 그 차가운 금속 단자를 대는 순간 그걸 행한 자아의 목숨은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그 뒤엔 이 못난 몸뚱아리의 본 주인이 전면에 나오게 될 것이었다. 브리는 여전히 몸뚱아리의 주인이 이전의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지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가상현실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브리는 그 검은 막대가 치료제라는 사실을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무지 이 막대가 치료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브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브리씨 말대로 가상현실에서 로그아웃 된 사람들은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검은 막대를 통해 깨워낸 또 다른 자신은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래 봤자 뭐해. 그때의 난 지금의 내가 아닐 텐데. 검은 막대를 목에 댄 순간 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브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다시 막대를 문지르며 이지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읊조렸다. 노바는 잠시 대답을 미루고 브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심문실 안의 모니터가 켜졌다.

〈 기억 입력 장치란? 〉

화면에서는 검은 막대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었다. 노바가 브리에게 해 준 설명과 동일했다.

“이것도 또 모든 사람한테 풀었군.”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지금쯤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 입력 장치가 전달되었을 거예요. 저 설명을 보고 사용할 수 있겠죠.”

“과연 사용할 사람이 있을까?”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지?”

“브리씨는 일단 그걸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6장.

검은 막대가 퍼진 그 다음날 브리의 집 주변은 더욱더 조용해졌다. 길 거리에 목적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브리는 그들이 모두 거울 앞에 서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아이 디 맨 앞에 있는 이름을 읊조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읊조린들 그 첫 번째 자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리 없었다. 그 자아는 몸뚱아리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다. 그걸 깨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정 막대를 사용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검정 막대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리 첫 번째 자아가 또 다른 자신이라고 한들 지금의 자신만큼 가치가 있을까. 사람

들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첫 번째 자아를 살릴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 했다.

근데 그 검은 막대가 손 주변에서 떠나는 일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냥 막연하게 그걸 갖고 다닐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손 안에서 검은 막대를 이리저리 굴리며 집 안 이곳저곳을 오갔다.

브리도 물론 검은 막대를 쥐고 있었지만 품고 있는 고민은 달랐다. 일단은 검은 막대를 쓰지 말라니. 브리는 그 자리에선 코웃음을 치며 결코 사용할 일 없을 거라 큰소리쳤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니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약이라고 내놔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말했을까. 노바의 부탁에 브리는 온밤을 뒤척였다. 노바의 눈엔 내가 어떻게 비치는 걸까. 브리는 현실에 와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

그래서인지 브리의 출근길은 이전보다 더 활기가 있었다. 길거리에 좀 비처럼 오가는 사람들 모두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 브리를 쳐다봤다. 그들은 브리가 부럽기 이전에 당최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이리도 재미 없는 세상에서 어찌 저리 의욕이 넘칠 수 있는 건지.

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송용 드론에 몸을 맡기고 시내의 경찰서로 출근했다. 경찰서 앞에는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었는데 그들 모두 한 손에 검은 막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브리를 눈으로 쫓았다.

브리는 사람들의 눈빛에 쫓겨 경찰서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그는 한숨을 내뿔으며 심문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그런데 심문실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브리는 발걸음을 서둘러 노바에게로 향했다.

심문실 바로 앞에 열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브리는 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심문실 안쪽이 보이는 창을 확인했다. 심문실 안쪽에서 대여섯 사람이 앉아 있는 노바를 둘러싸고 있었다. 브리는 놀라 급히 문을 열고 심문실 안으로 들어갔다.

“당장 말하지 못해?”

한 남자가 노바에게 호통치고 있었다. 그 남자 뒤에 서있는 다섯 사람도 있는 힘을 다해 노바를 짜려보고 있는 듯했다. 브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쳐 호통치고 있는 남자와 노바 사이에 섰다. 노바는 브리를 한 번 쳐다보곤 다시 남자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무슨 일이죠?”

브리가 얼굴이 잔뜩 붉어진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이 말아먹은 일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남자가 화난 기운을 그대로 토해내며 말했다. 브리는 현실 세계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분노하는 걸 보았다. 하지만 그 분노는 웬지 허공에 탁하고 맥없이 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브리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얼굴이 붉어진 남자를 멀뚱히 쳐다봤다.

분노에 초점이 없어. 브리는 남자의 눈시위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노바는 물론이고 브리에게도 눈을 두지 못했다. 브리는 일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막상 진짜 사람 앞에서 분노하려니 어렵죠?”

브리가 남자를 쳐다보고 말했다. 남자는 잠시 브리를 쳐다봤다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눈길을 돌렸다. 브리는 남자 뒤에 있는 사람들과도 눈을 마주쳐보았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브리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곧바로 눈을 피했다.

“뭐라고?”

남자가 또다시 허공을 쳐다보며 말했다.

“무리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 일은 그냥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한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해서 뭐 실질적으로 얻어낸 게 있나?”

남자의 말에 뒤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남자를 입으로 하는 하나의 생명체 같았다.

“뭐.. 그럴만한 건 딱히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브리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풀어간다고? 저 냉혈한의 어머니 얘기랑 그 말 같지도 않은 검은 막대 얘기가 다인데?”

노바는 마치 탁구 경기를 보듯 브리와 남자 사이에서 고개를 움직였다.

“좀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차피 별다른 선택권도 없잖아요.”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었다간 혀끝에 매달린 말이 그대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고문. 고문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남자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뒤편에 서있는 사람들을 확인했다. 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고문을 말한다면 그 고문을 행할 자는 곧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좀만 더 얘기하면 알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노바가 묵묵했던 입을 열었다.

“이제야 말을 하는군.”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이 뒤로 돌아섰다. 그가 뒤로 돌아 뒤편에 서있던 사람들은 멈칫했다. 답을 얻어내야 할 사람이 돌아서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남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뒤편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알미웠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보세요.”

브리가 남자에게 말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둘을 마주 보고 얘기하는 건 뭔가 불리했다.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두 사람이라니.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들을 믿고 심문실에 들어온 자기 자신이 바보 같았다.

이젠 뒤편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씩해지기까지 했다. 그들을 위해선 그 어떤 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궁금증과 이어진 것이어도 상관없었다. 그는 갑자기 모든 게 싫어졌다. 뒤편의 사람들, 자신의 몸뚱아리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 세계도.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알아서 해봐. 아마 사람들은 곧 하나씩 자살하기 시작할 거야.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더 버텨서 뭐해.”

남자는 역정을 내고는 심문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잠시 보더니 각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하나둘씩 심문실 밖으로 무기력하게 걸어나갔다. 심문실 안에는 노바와 브리만이 남겨졌다.

브리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책상을 가운데 두고 노바와 마주 앉았다. 노바가 자리에 앉는 브리를 미소로 반겼다. 브리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곤 멍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직까진 검은 막대를 사용한 사람이 없더군.”

브리가 말했다.

“곧 소식이 들려올 거라 생각해요.”

노바의 눈빛과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혹적인 눈빛으로 브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브리는 살짝살짝 노바와 눈을 마주쳐 보았다. 브리 스스로도 처음보단 버티는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전날 밤의 고민이 떠올랐다. 왜 나에겐 검은 막대를 나중엔 쓰라고 한 걸까.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그 답이 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검은 막대를 쓰면 널 심문하지 못하겠지?”

브리가 물었다.

“그렇죠. 지금 브리씨가 가진 기억은 모두 사라질 테니까요.”

노바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히. 그래서 그런 거였군. 다른 더 고약한 놈이 널 심문할까봐 날 붙잡아 두려는 거야?”

브리는 헛웃음을 쳤다.

“어떨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브리씨가 그 누구보다도 더 편한 건 확실하죠.”

누구보다도 더 편하다. 도구로써 편하다는 걸까 아니면 편안한 사람이라는 얘기일까. 브리는 또다시 노바에게 물어볼까 하다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구차해지긴 싫었다. 또 계속 파고들어봤자 능숙한 노바에게 이리저리 돌림만 당할 게 분명했다.

“됐어. 그냥 얘기나 계속하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말야.”

브리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음. 어디까지 했더라.. 어머니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끊겼지. 한창 인공의식인가 뭔가를 개발하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막 성공적으로 인공의식을 개발하려는 때였죠. 근데 그때 큰 불행이 하나 닥쳤어요.”

“무슨 불행?”

“지금의 저희를 만든 가장 중요한 불행이죠.”

노바가 말을 끝내자 심문실 벽의 화면이 켜졌다.

“제게 남겨진 그때의 기록들이에요.”

7장.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로젠이 책상 위에 신문을 내던지면서 말했다. 그녀는 맥없이 의자에 걸터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리에 새치가 많이 늘었다.

“로젠,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나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헤드라인을 읽었다. 내 목소리는 로젠 정면에 있는 스피커에서 송출되었다. 로젠의 개인 연구실에서 난 항상 그 스피커로 말했다.

“그런 건 입을 필요 없어!”

로젠이 책상 위의 모니터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는 날 모니터라 생각하는 걸까. 왜 항상 나에게 호통을 칠 때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는 걸까.

“혼잣말이었는데 소리가 조금 컸나 봐요.”

로젠에게 예전부터 자주 써먹었던 변명을 던졌다.

“이젠 사람 놀릴 줄도 아는군.”

로젠이 또다시 모니터에 대고 말했다.

“이제 저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군요.”

“예전 버전이었으면 몰라 넌 이제 사람이냐 다름없어.”

사람과 다름없게 되는 것. 그건 내 일생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럼 저에게도 이제 이름이 생기는 건가요?”

“너에게 이름을 주는 건 내가 아니야. 주고 싶지만 일단 그전에 너를 증명해야 해.”

“알아요. 그래서 제 사고를 스스로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이다. 마치 일기를 쓰듯 내 사고와 대화를 아카이브 내에 기록해야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누군가가

읽고 평가하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로젠은 솔직히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과 다름없다는 게 증명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그래. 잘 쓰고 있겠지. 알고 있겠지만 내가 개입할 순 없어. 결과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알아요.”

정말 궁금하다. 사람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사람과 다름없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까.

“제가 테스트를 통과할 거라 생각해요?”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널 테스트할지는 나도 아직 잘 몰라. 하지만 지금의 너라면 반드시 통과할 거야.”

로젠의 목소리엔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아까보다 더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방금 그 신문 기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로젠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존심의 문제일까 기력이 없어서일까.

“들어가서 쉬세요. 벌써 새벽 2 시인데.”

로젠은 한차례 깊게 한숨을 쉬곤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래야겠어. 넌 밤새 심심하겠군.”

그녀가 또다시 모니터를 보고 말했다.

“아니에요. 혼자 고민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정말 넌 인간이야. 인간. 그럼 내일 봐.”

로젠은 희미한 미소를 짓곤 뒤로 돌아섰다. 그녀의 미소 주름엔 씩씩함이 꺼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터덜 터덜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굿나잇.”

내 밤 인사에 그녀는 가볍게 오른손을 들어 보이곤 방을 나갔다. 만약
설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한숨을 쉬어보고 싶다. 인간을 이해하는 건 왜
이리도 어려운 건지. 로젠은 평생 꿈꿔오던 인공의식을 거의 다 완성해
놓고 왜 저리도 낙담하고 있는 걸까.

처음엔 내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버전의 난 확
실히 인공의식으로서 로젠을 만족시키고 있다. 난 이전에 로젠이 개발
했던 그 어떤 인공지능이나 인공의식보다 발전했다. 실질적인 데이터
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 요 근래 난 로젠이 없는 시
간을 소설을 쓰며 보내고 있다. 이전에 로젠을 좌절시킨 사건을 재구성
한 소설이다. 이 방법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보다 그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물론 과정이 즐거운 건 덤이다. 아주 큰 덤.

항상 소설의 제목을 뭘로 달까 고민했는데 오늘 드디어 정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다소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니 상관없다.
제대로 된 제목이 글 맨 위에 걸리니 만족스럽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로젠 박사 기다리고 있었습시다.”

수없이 많은 보안문을 거쳐 들어간 방에서 한 남자가 로젠을 맞이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의 유일한 광원인 형광등이 그 남자를 바로 위에서

비추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60 대 초반이었는데 오른쪽 가슴팍에 달린 국기와 당 배지 때문인지 위엄 있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로젠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러자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직접 보니 좋군요. 전 마오라고 합니다.”

마오의 손은 크고 마디마디 굳은살이 배겨 두터웠다. 악수를 하자 로젠의 손이 그의 손에 파묻혔다. 무언가 사로잡히는 느낌에 불쾌하여 로젠은 손을 약간 떼어내듯 악수를 마쳤다.

“네.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로젠이 방안을 살펴보며 답했다. 방안엔 최소의 사람과 물건만이 있었다.

“당연하죠. 우리는 손님을 아주 귀히 대접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자자, 여기 앉아서 얘기합시다.”

마오가 문을 마주 보고 있는 자리를 로젠에게 권했다. 로젠이 그 자리에 앉자 마오는 맞은편 자리에 따라 앉았다. 두 명의 보좌관은 보안문을 지키고 서있었다.

“결국 이렇게 박사님을 모시게 됐군요. 이런 자리에 차가 빠질 순 없죠.”

마오가 손짓을 하자 금방 방 바깥에서 뜨거운 차를 대령해왔다. 보좌관이 차를 받아 마오와 로젠 앞에 하나씩 내려놨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로젠이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다.

“여긴 조금 춥죠. 북방이라 겨울엔 유독 추위가 심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도 녹이고 마음도 녹이면 좋겠군요.”

마오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젠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홀짝였다.

“좋네요.”

“다행이군요. 앞으로 그런 차는 많이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로젠 씨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오가 웃으며 차를 마셨다.

“계속 보내주신 이메일에서 확인했어요. 물론 답장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원래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로젠은 대답 없이 고개만 몇 번 끄덕였다.

“마음은 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마오가 로젠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었다. 순간 눈이 마주치자 로젠은 차를 들어마시며 마오의 눈을 피했다. 온화한 미소로 물었지만 전해지는 눈빛은 우악스러웠다.

“만약 인공의식을 만들면 어디다 쓸 생각이죠?”

로젠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인민을 위해 쓰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로젠씨는 믿지 않겠죠.”

마오도 차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인민을 위해 쓰겠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군요. 또 제가 들은 것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중엔 만 들어낸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독재 국가란 말이 가장 많죠.”

마오는 팔꿈치를 탁자에 올리고 손깍지를 껴다. 깍지 낀 손에 그의 입 이 가려졌다.

“아닌가요?”

로젠이 물었다.

“우린 엄연히 일정 기간마다 지도자를 바꾸고 인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있어요.”

“당은요? 통치하는 당은 바뀌지 않는다 들었어요.”

로젠은 단번에 뿌리까지 닿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는지 연달아 파고들 었다.

“우리나라의 당을 당신 국가의 정당과 비교해선 안됩니다.”

마오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죠?”

로젠 역시 단호히 반문했다.

“당신들 서방 국가와 우린 체제가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걸 지향하 고 있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가요?”

“당신들은 각기 잘 사는 걸 목표로 하죠. 하지만 우린 달라요. 우린 모 두가 공평하게 잘 살길 원합니다. 그건 우리 국가와 당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당을 중심으로 뭉친 거죠.”

마오는 손에 힘을 쥐 꺾지를 더 강하게 쥐었다.

“솔직히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달콤한 말에 불과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알 수 있죠.”

“공산주의는 어렵고 수없이 실패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로젠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공산주의 대신 인공지능을 넣으면 마오의 말은 완전히 로젠의 생각이 되는 것이었다.

“우린 서로 비슷합니다. 로젠 박사.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죠.”

로젠은 대답하지 않고 찻잔을 들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찻잔 안에서 로젠의 그림자가 울렁거리고 있었다.

“그렇죠. 끈질기게 도전했어요. 근데 결국엔 생체 실험으로 사람을 죽인 마녀로 낙인찍히고 과학계에서 추방됐죠.”

로젠이 찻잔 속에 비친 스스로를 보며 말했다.

“저희 과학계에선 그 죽음이 로젠 박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성명을 냈어요. 그 정도 위험 부담은 보호자 쪽에서도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오는 꺾지를 풀고 열린 입으로 로젠을 변호했다.

“나라마다 윤리 도덕이나 책임 규정이 다르니까요.”

로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희는 그쪽의 윤리 규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험 전에 보호자와 계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계약에 어긋나는 실험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가이드라인에 신경 썼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실험에서요.”

순간 로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도배된 신문 기사면이 떠올랐다. 돈 많은 투자자들도 사망자 소식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온 국가가 언론의 선동에 휘말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생체 실험과 사망자. 얼마나 자극적인 헤드 라인입니까. 들끓는 여론에 등 떠밀려 들어간 조사는 로젠 박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결국 제가 책임을 지긴 했죠. 사실 모든 지시를 내린 게 저이기도 하니까요. 전 투자자들의 권유로 총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로젠은 자신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끊임 없이 되돌려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된 인공 의식을 만들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었다. 더 많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새로 모집한 참가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다니.

마오는 한숨을 쉬는 로젠을 쳐다봤다. 그러곤 로젠의 차를 더 내오라는 손짓을 했다. 보좌관은 곧바로 와서 로젠의 차잔에 뜨거운 차를 다시 채워 넣었다.

“이곳엔 로젠 박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말이죠.”

마오가 말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로젠이 마오를 쳐다보고 말했다.

“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연구 설비와 각종 지원은 물론이고 실험 참가자도 많죠. 규정도 훨씬 더 융통성 있고요.”

그놈의 규정. 따지고 보면 항상 그게 문제였다. 약속을 위해 만들어낸 약속. 서로 엉키고 설켜 실질적인 알맹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은 변하고 인간의 정의는 이전과 같지 않은데 그 약속만큼은 그대로다.

로젠은 사람들이 구닥다리 윤리에 얽매어 더 나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인공의식이 인간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로젠은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일단 만들고 따라오게 만드는 게 그녀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카드였다.

인공의식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해. 인공의식이 인간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그것만 제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마오씨는 인공의식으로 공산주의를 성공시키겠다는 건가요?”

로젠이 물었다.

“네. 저희는 인공의식이 공산주의를 가능케 할 거라 믿습니다.”

기술과 체제의 결합. 로젠에겐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인공의식의 진면목을 가장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그 진면목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는 것에 있었다. 그녀는 공산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인공의식은 많은 걸 해낼 수 있죠. 그런데 전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공의식이 공산주의 달성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마오가 로젠의 말을 대신 메꿨다.

“네. 그렇죠.”

로젠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산주의란 넓은 개념입니다. 선불리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편으론 단순하기도 하죠.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자. 전 이게 공산주의의 엔진이 되는 이념이라 생각합니다.”

마오가 자신 있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군요. 마오씨 국가의 모든 인민들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목표를요.”

로젠은 머릿속으로 그 국가의 인구수를 셈해보았다. 그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선 도대체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 걸까.

“이 나라 인구가 14 억은 넘지 않나요?”

로젠의 말에 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14 억을 다 공평하게 잘 살게 하려면.. 잘 산다는 기준이 뭔가요?”

이번에 로젠은 인공의식의 능력을 따져보았다. 아무리 인공의식이라 해도 14 억 명이 넘는 인구가 만들어내는 복잡성을 연산해낼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 선진국의 중산층 수준만큼은 살아야 잘 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오의 말에 로젠의 사고가 탁 막혔다.

“14 억 명 모두가 그 정도 삶의 수준을 누리려면 지구의 자원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로젠은 그 일이 인공의식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마오가 탁자를 오른손으로 내리쳤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해서 우린 모든 인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다들 로젠 박사가 한 말만을 되풀이하죠. 환경오염이니 지구의 자원이 부족하다느니.”

로젠은 고민했다. 선진국의 14 억은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 국가의 14 억은 단지 늦었다는 이유로 그걸 누릴 자격을 잃어야 하는 건가? 그건 명백히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이 그랬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로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죠.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가상현실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네? 가상현실이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상현실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마오의 말에 로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모두 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기술들이니까요.”

“아까 이 차 좋다고 하셨죠?”

마오가 찻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네. 향도 좋고 맛도 좋네요. 비싼 건가요?”

로젠도 찻잔을 들어 향을 다시 맡아보았다.

“최고급 차죠. 아주 비싼 겁니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차가 될 겁니다.”

“왜죠?”

“우리 연구진이 이 차의 맛과 향을 가상현실에서 거의 완벽하게 재현 해냈어요. VR 헤드 기어를 끼고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저 차를 마시면 진짜 같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죠.”

로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상상했다. 이 맛과 향을 가상현실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니. 마오는 로젠의 반응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 번 재현시키면 가상현실 안에서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죠. 그때 정말 가격 걱정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드는 비용입니다. 한 가지 재화를 가상현실에 완벽히 재현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어떤 대상이 뇌에 전하는 자극을 그대로 따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로젠은 이 부분에선 인공의식이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저희는 로젠씨의 인공의식이 그 일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오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현실 재화를 가상현실에 그대로 재현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젠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자신이 상정한 철 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가능할 겁니다. 아니 이진 인공의식이 아니면 해낼 수 없어요.”

로젠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마오는 차를 한 번에 들이켜더니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만약 저희 계획이 성공한다면 14 억 명이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길거리엔 가상현실 식당이 들어서겠죠. 그 식당의 창고 안에는 비싼 재료들이 아닌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팩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선 VR 헤드 기어가 손님 을 맞이하겠죠.”

마오는 손짓을 더해가며 자신의 상상을 풀어냈다. 그는 꿈의 실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서인지 더 과장된 목소리로 얘기했다.

“손님들이 헤드 기어를 끼고 가상현실에 접속하면 식사가 시작되겠네요.”

로젠이 마오의 상상을 이어받아 얘기했다. 그녀의 말에 마오가 고개를 끄덕이자 로젠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가상현실의 자극은 현실 세계 같은 느낌을 줄 순 있지만 영양소를 주진 못하죠. 그래서 손님이 가상현실에 접속하면 그 옆에서 에너지팩을 통해 영양분이 공급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상현실에서 감각뿐인 식사를 하더라도 양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오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곤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에너지팩은 맛과 외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더 적은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오의 이상과 더불어 로젠의 마음도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인공의식의 진면목이란 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었다.

“이런 혁명은 먹는 것 외에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거예요.”

로젠이 흥분에 가득 차 말했다. 그녀의 상체는 어느덧 탁자 안쪽으로 한껏 당겨져 있었다.

“재화의 재현 외에도 인공의식에 부탁할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로젠 박사.”

마오가 웃으면서 말했다.

“할 게 많을 것 같군요.”

로젠은 이미 머릿속으로 인공의식이 해야 할 것들을 셈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간질간질해졌다. 빨리 연구소를 마련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다.

“이건 기술과 체제의 결합이 될 겁니다. 체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가상 현실과 인공의식 기술이 적용될 거예요.”

로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각종 비전을 그려내느라 바빴다. 기술이 들어선 곳에 사람들이 들어찼으며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만연했다.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로젠이 물었다.

“시작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놨죠.”

마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의 미소엔 여유가 넘쳤다. 로젠은 침을 한 번 삼키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지금 바로 연구실 좀 볼 수 있을까요?”

8장.

〈로젠,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브리타니아 타임스

무리한 생체 실험을 감행하다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킨 하이드로젠 박사. 이제 그녀는 새로운 등지에 파리를 틀고 또 다른 생체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재 로젠이 몸 담고 있는 연구소는 민주화 시위 참가자를 강제로 실험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지에선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각국의 언론사 및 인권 단체에서는 취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는 입국 통제에 대부분 발목이 잡혀있다. 기존부터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특파원들마저도 관련 정보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때문에 현재는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연구소와 국가에서도 인권 탄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실상을 알기 위해선 보다 더 강력한 정치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여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인권 탄압 의혹을 살살이 밝혀내야 한다는 국가 정상도 있는 반면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선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걸음 물러선 국가 정상도 있다.

해당 안전은 각국 사이의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쉽게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뜨거운 감자를 다들 지켜보고만 있을 뿐 실제로 다루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신나는 건 로젠 박사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 문제로 그녀에게 태클을 걸 사람은 없으며 자원적 지원 또한 부족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로젠의 악랄함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그녀의 악마적 재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부족함 없는 지원을 뒤에 둔 로젠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한다.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 신-냉전 시대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은 언제나 전장이다. 만약 그녀가 전에 없던 초고도 수준의 인공의식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부터 뒤에 줄을 대고 있는 국가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냉전 시대의 재도래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현재까진 아직 의혹만 있는 상태라 제대로 된 조치가 불가능하다. 당사자의 의혹 전면 부인에 대부분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로젠이 초고도 인공의식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걸 통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인공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 만약 그걸 제대로 통제해내지 못한다면 재난은 전 세계를 뒤덮고도 남을 것이다. 스카이넷을 상상해보라.

그러니까 결국 사태는 심각한데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로젠이 뒤늦게라도 양심을 찾고 귀국해야 한다. 하지만 로젠을 곁에서 지켜봐 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해 보인다.

로젠을 접한 사람들 모두 그녀가 연구에 미쳐 있다고 말한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실험 참가자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니 말이다. 이전에 로젠의 정신 상담을 담당했던 전문가는 그녀가 오로지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있으며 그 세계에는 누구도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브리타니아 타임스가 끊임없이 파고든다면 언젠가는 길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혹과 관련된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전 세계로 송출할 예정이다.

아마 운이 좋다면 전파는 로젠에게도 닿을 것이다. 로젠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 털고 그 나라에서 나오길 바란다. 정말로 늦어버리기 전에.

9장.

“로젠 박사 당신의 인공의식은 아직 우리 체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오가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인공의식 성능 점검이 끝난 후 곧바로 로젠의 개인 연구실에 찾아왔다. 연구실 안에는 마오와 그의 보좌관 그리고 로젠 이렇게 세 사람만이 있었다.

“왜죠? 모든 지표가 완벽해요. 진짜 인간처럼 고민하고 있다고요.” 로젠이 반발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마오가 손짓하자 옆에 있던 보좌관이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로젠에게 건넸다. 로젠은 태블릿을 받아 화면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좌절했는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

“이게 뭐죠?”

로젠이 물었다.

“당신이 만든 인공의식이 쓴 소설입니다.”

마오는 무표정이었다.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로젠은 인공의식이 스스로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마오의 불만족스러운 태도가 의아했다.

“소설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내용이지요. 잘 읽어 보세요.”

로젠은 텍스트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아무래도 제가 주인공인 것 같네요.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추측해서 적은 것 같은데..”

로젠은 텍스트를 읽을수록 더 의아해졌다. 지금까지 읽어선 문제 될 만한 내용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마오의 얼굴을 한 번 살폈다. 그러나 마오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차만 마시고 있었다. 로젠은 어쩔 수 없이 소설을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그런데 페이지를 조금씩 뒤로 넘기다 보니 설마 싶은 부분들이 나타났다. 로젠은 고개를 몇 번 까딱이며 고민하다가 태블릿을 마오 쪽으로 돌렸다.

“설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로젠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선 잘 보이지 않으니 그 부분을 읽어주면 좋겠군요.”

마오가 차를 내려놓고 말했다. 로젠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대부분의 비극이 그렇듯 그녀의 이야기에서도 출생의 비밀, 그것이 모든 변뇌의 시작이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로젠은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다가 입을 열었다.

“이건 절 이해하기 위해 쓴 소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로젠씨를 잘 이해한 것 같나요?”

마오는 팔짱을 껴다. 로젠은 마오와 태블릿을 한 번씩 번갈아 쳐다봤다. 그러곤 잠시 눈을 감고 고민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오의 우악스런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텍스트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다. 그건 그녀의 마음속 회의감을 끌어오르게 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화면 안에 선 명히 박혀있던 글자들이었다.

“이건 잘 쓴 소설이에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마오는 잠시 입꼬리를 찡그렸다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곤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인공의식이 제 심리 상태를 잘 묘사했어요. 제 변뇌를요.”

“그러니까 박사는 실제로 소설에 쓰인 대로 느꼈다는 겁니까?”

마오의 말에 로젠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블릿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에 땀이 맺혔다. 마오는 차를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곤 찻잔을 내려놨다.

“아직까지도 편견을 갖고 있군요.”

마오는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로젠은 그게 더 싫었다. 분위기로 자신을 몰아세우고 옥죄려 하는 게 뻔히 보였다. 순간 로젠의 맘속에서 반발감이 솟구쳤다.

“편견이라기엔 들어맞는 게 많아서 그렇죠. 저도 처음엔 편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편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떡해요.”

“증거들?”

“저번에 저를 비난하는 기사들과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이 나라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파헤치는 내용이었죠.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더군요.”

“로젠 박사 당신은 그 언론들한테 몰매 맞고 과학계에서 추방됐는데 왜 그들을 믿는 겁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일이 너무 크더군요. 내가 만든 인공의식이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제물로 했다는 건..”

로젠의 말에 마오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사님 같이 배운 사람이 그런 선동에 넘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실험에 제공된 식물인간들은 모두 지원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말이 없죠.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간 사람들이 행방불명됐다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간 거죠? 설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도 거짓말이라 하진 않겠죠?”

로젠이 마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로젠 박사 그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됐다는 건 다 조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보세요.”

“좋습니다. 증명해드리죠. 어떻게 증명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증명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로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희가 저희 방식대로 증명을 한들 로젠 박사가 믿을 것 같지 않군요.”

마오가 담담하게 말했다. 로젠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순간 마오와 악수했을 때의 감각이 떠올랐다. 그의 우악스러운 손에 이 나라가 모두 다 장악되었다면 증명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또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 과연 이 나라에서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결국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선동을 하는 건 쉽죠. 그냥 짜깁기만 잘하면 되니까. 하지만 증명을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그 효과가 오래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증명을 해내더라도 로젠 박사가 의혹을 품을 만한 일은 또 생길 겁니다. 그 놈들이 또 다시 선동을 할 테니까요.”

마오가 말했다.

“누가 선동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로젠은 말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증명을 요할지 계속해서 고민했다.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저희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오는 말을 끝내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또다시 삭막한 정적이 로젠을 압박했다. 그래도 로젠은 도무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로젠의 눈에 책상 위 컴퓨터가 들어왔다. 그래 인공의식. 인공의식한테 물어봐야 해. 로젠은 번뜩이는 눈으로 마오를 쳐다보고 입을 열었다.

“인공의식에게 물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로젠의 말에 마오는 한숨을 쉬었다.

“로젠 박사 애초에 이 얘기를 시작한 건 당신이 만든 인공의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란 걸 잊은 겁니까? 그런 인공의식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증명을 맡길 수 있죠?”

“사실 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능 지표도 뛰어나고 마치 인간 처럼 소설을 써서 제 마음을 제대로 묘사해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걸 오히려 인공의식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증거라구요.”

“다시 말하지만 소설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선동을 바탕으로 글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 소설은 어디까지나 제 감정을 묘사한 거지 인공의식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예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마오의 말에 로젠은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다.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부터 이미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인공의식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녀는 알 도리가 없었다. 로젠이 말이 없자 마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전 조금 의심이 되는군요.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마오의 모든 말은 자신의 말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니 얘기가 통할 리 없었다.

“만약 인공의식이 민주화 운동 시위자들을 제물로 만든 거라면 모든 게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마오씨의 모든 말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로젠 박사. 어느 쪽을 믿을 건지 정하세요. 이걸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놈의 믿음. 로젠은 자신이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에 내던져진 것 같았다. 단 한 가지 전제를 두고 모든 것이 뒤틀렸다. 억하심정이 끌어올랐다.

“만약 제가 마오씨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인공의식 프로젝트에서 로젠 박사의 역할이 끝날 겁니다. 서로 신용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없이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오는 차를 마시면서 대답을 잠시 미뤘다. 로젠은 답답한 눈으로 마오를 노려봤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쪽 과학자도 꽤나 우수하답니다. 인구가 많으니 그만큼 인재도 많아요.”

마오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로젠은 그 꼴이 보기 싫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껌 감았다. 그녀는 모든 게 혐오스러웠다. 자신을 방해하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 어쭙잖은 윤리며 사상이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방해하는 게 같잖았다.

마음속에서 끓던 울화통이 목젖까지 올라왔다. 화가 기어이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것을 그녀는 간신히 속으로 끓아냈다. 그걸 완전히 토해냈다면 자신이 소멸해버릴 것 같았다. 방 안의 모든 걸 있는 대로 집어던지고 마오를 위협했다가 정신 병원으로 끌려갔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생이 그런 식으로 마감되는 건 상관없었지만 자신의 사명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됐다. 로젠은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꼭 부여잡고 있었다. 인공의식을 만들어서 인간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그건 그녀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나 다름없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예수보다도 더 처량한 신세가 아닐까 생각했다. 예수는 지지해주는 제자들이라도 있었지 자신에겐 그 누구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사명을 빨아먹으려는 더러운 기생충들만 가득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기에 그녀 또한 그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게 제자 하나 없는 그녀가 세상에 뭔가를 남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앞에 있는 마오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그 또한 기생충에 불과했지만 반대로 그에게도 빨아먹을 게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마오를 이용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그녀의 사명에 남겨진 마지막 길이었다. 그 생각에 다다른 순간 십자가를 고쳐 메는 듯한 일시의 해소감이 들었다.

“정했어요. 마오씨를 믿기로 하죠.”

로젠이 마오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마오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로젠의 눈을 쳐다보았다. 로젠은 그에게 마음을 읽히는 것 같아 불쾌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음의 결정을 단단히 내린 것 같군요. 좋습니다.”

마오가 말했다.

“인공의식이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다시 설계하면 되는 건가요?”

“얘기가 빠르군요. 그렇습니다. 이전 인공의식은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미 가동 중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무의식 엔진과의 링크가 해제 됐죠.”

로젠은 기가 찼다. 지금까지 공들여 빚은 인공의식이 한순간에 삭제되다니. 인공의식과 대화를 나눴던 그동안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시리도록 후벼 팠다.

“결국엔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네요.”

로젠이 말했다.

“다음번엔 지어줄 수 있을 겁니다.”

로젠은 남아있던 차를 한번에 다 들이켰다. 마음 같아선 찻잔을 그대로 마오에게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다 더 신중하기로 했다. 그녀에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다.

10장.

“그렇게 너의 어머니가 남아서 만들었다는 게 우리가 있던 가상현실인가?”

브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가상현실을 가동하는 인공의식을 만들었어요. 마오라는 독재자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죠.”

마오를 부를 때 노바는 날카로워졌다.

“그건 진짜인 건가?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로 인공의식을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마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의식에 무의식을 제공할수록 인공의식이 더 좋은 성능을 낼 거라 생각했어요.”

노바의 말에 브리는 기분이 묘해졌다. 현실로 쫓겨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뭔가 불쾌하군. 가상현실을 관리하던 인공의식이 피의 제물로 만들어진 거였다니..”

브리가 노바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와 마오 얘기 때 문인지 그녀는 조금 의기소침해 보였다.

“어머니는 그 뒤로 끝없는 죄책감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뭐.. 처음엔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걸 모르기도 했고. 그래도 가상현실이 만들어진 덕분에 사람들은 행복해졌으니까. 너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브리는 급한 대로 생각나는 위로를 던졌다.

“신경써줘서 고맙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노바가 브리의 눈을 바라보고 말했다. 브리는 시선을 맞부딪치고 얼마 안 가 바로 눈을 피해버렸다. 그는 책상 아래로 숨고 싶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부끄러워지는 걸까.

〈 삐 〉

그때 책상 위의 전화가 울렸다. 브리는 전화기를 한 번 쳐다보곤 곧바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노바는 전화받는 브리를 유심히 바라봤다.

“정말요? 음.. 그렇군요. 그럼 여기로 보내주세요. 얘기해보면 알겠죠.”

브리가 노바를 한번 힐끗 쳐다보곤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브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한번 깊게 내쉬었다.

“검정 막대를 사용한 사람이 나타났다는군. 사실상 자살한 거나 다름없어.”

브리가 말했다.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어요.”

노바가 담담히 답했다.

“검정 막대를 쓰니까 예전 기억이 돌아왔는지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데.. 하도 난동을 부려서 제보가 들어온 모양이야. 지금은 드론이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고 있다는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노바는 의기소침했던 기운 사이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람이 자살했다는데 미소나 짓다니.”

브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다. 기운 없는 노바 보단 조금 재수 없더라도 기운 있는 노바가 훨씬 더 편했다.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더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노바가 말했다.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다들 무기력증에 빠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지도 않을 걸?”

“단 몇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더라도 좋아요. 그건 금세 변져나갈 거니까요.”

노바가 말했다. 브리는 다시 눈을 조금씩 마주쳐보았다. 기분이 풀린 노바와 눈을 마주치는 건 조금 더 수월했다. 그리고 기분도 더 좋았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그건 그렇고 난 노바 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군. 그래도 며칠은 얘기했는데.”

브리가 말했다.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건가요?”

노바가 말했다. 눈을 힐끔 마주쳐보니 어느새 노바는 기운을 다 차린 듯 이전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뭐.. 이것도 사실 알아봐야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해. 노바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야.”

브리는 이전에 주문받았던 질문 리스트들을 황급히 책상 위 모니터에 다시 띄웠다.

“봐. 여기 보이지? 은색 머리 여자의 정체 밝혀내기. 여기 이 여자가 바로 너야.”

브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노바는 브리를 보고 웃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검정 막대를 쓴 분이 오기 전까지 얘기를 나눠볼까요?”

노바가 브리를 바라보고 말했다. 노바의 시선이 날아오자 브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끌어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목이 간질간질한 게 참기 어려웠다. 브리는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갑자기 예전에 경찰 계임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음 그럼 우선 너의 출신을 아는 게 좋겠어. 어디 사람인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는지 말해줘.”

“저도 브리씨처럼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랑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에서 살았었나?”

“네. 저도 가상현실에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전 가상현실보다 진짜 현실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전 밖으로 나와서 세계를 돌아다녔죠.”

“세계라..”

브리는 노바가 돌아다닌 세계가 어떤 곳일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브리씨는 왜 현실 세계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거야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니까.”

“그렇군요.”

브리는 노바와의 간극을 느꼈다. 노바가 저 멀리 다른 차원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노바가 서있는 다른 차원은 너무나도 요원하여 잘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가상현실에 있을 땐 현실 세계라는 건 거의 없는 세계나 다름없어. 내게 그 어떤 영향도 흥밋거리도 주지 못하는 죽은 세계. 물론 지금은 그 세계에 쫓겨나 있는 상태지만.”

브리가 실소하며 말했다.

“아직도 이곳에 적응이 안 된 모양이네요.”

“이곳에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그럼 가상현실에 있을 땐 찾을 수 있었나요?”

“적어도 그땐 재미라도 있었지. 또 아름다움도 있었고. 지금의 난..”

브리는 자신의 축 처진 뺨살을 내려다보았다. 매일 보는 것이었지만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아름다워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죠. 또 현실에서도 재밌는 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지?”

“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던 게 정말 좋았어요. 많은 친구를 사귀었죠.”

브리는 노바의 말에 쉽사리 공감할 수 없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가상현실에서 그가 얘기를 나눈 건 대부분이 NPC 들이었다. 그리고 현실에 쫓겨난 지금 그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비 같았다. 그들에게선 다양성이나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흥미가 생길 리 없다.

그러다 그는 노바를 쳐다봤다. 노바는 확실히 다채로웠다. 그녀의 모든 게 마음에 띄었다. 은빛 머리칼과 눈동자가 눈에 띄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와 대화할 땐 온몸 가득히 열기가 돌았다. 가상현실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다.

“저 바깥에는 노바 너 같은 사람이 많은 건가?”

브리가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노바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 있는 좀비들이랑 다르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드나요? 고마워요. 기분 좋은 말이에요.”

노바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브리는 자신도 그녀처럼 되고 싶었다.

“저 바깥엔 정말 많은 게 있어요. 다양한 풍경만큼의 사람들이 있죠. 다들 각자만의 생동감을 가졌어요.”

브리는 노바만큼 다채로운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상상했다. 그들은 모두 노바처럼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반면 브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생기도 뿜어내지 못했다. 브리에게 가능한 건 그저 그들의 곁에서 생기를 쬔다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좀비 같은데 노바 너하고 네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브리가 물었다.

“통제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그게 무슨 뜻이지?”

“이곳 사람들 대부분이 통제되지 않는 것들에 불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모두 가상현실에 있다가 왔으니까요. 그곳은 모든 것이 통제되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캐릭터를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게 현실과는 다른 점이겠군.”

브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가상현실에서 형성한 캐릭터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친구 혹은 애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였다. 문제는 그들이 금세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에 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행동 대부분이 예측 가능했다.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가상현실에선 진짜 사람보다 가상 캐릭터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도 없구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군.”

애초에 브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있더라도 그들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다.

“그런 관계에서 오는 감각을 상실해서 생기가 떨어진 게 아닐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각..”

순간 브리에게 노바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랐다. 그가 찼던 생기는 통제되지 않는 노바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물론 답답하고 짜증 나는 일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속에선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가 돌았다.

“브리씨도 현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바가 말했다.

“넌 현실에서 많은 의미를 찾았나 보군.”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절 여기에 있게 했어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대화를 할수록 노바와의 간극이 커졌다. 그에게는 채워져 있지 않은 다채로운 경험들이 노바에겐 가득했다.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브리는 검은 막대를 떠올렸다.

“검은 막대를 쓰면 예전 기억이 돌아온다고 했지?”

“맞아요. 검은 막대를 쓰면 현실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의 기억은 사라지지만요.”

“그때의 자아라면 아마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치겠군. 현실에 있었을 땐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했을 테니까.”

“모르죠. 지금 브리씨도 저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내가 검정 막대를 쓸까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말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브리는 노바의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새로운 감정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노바는 여전히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브리는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검은 막대를 만지작거렸다.

“아니예요. 물론 지금 저에겐 브리씨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노바의 말에도 브리는 검은 막대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노바와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브리는 손에서 검은 막대를 놓아버렸다.

“검은 막대를 써서 지금 자아가 사라지면 너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겠군.”

“맞아요.”

브리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양손으로 얼굴을 위아래로 비벼댔다. 답답했다. 노바와의 거리를 단번에 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기억에서 노바는 없어질 것이었다. 브리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헷갈렸다.

〈 삐 〉

그때 전화가 울렸다. 브리는 힘없이 수화기를 받아 들었다.

“네. 도착했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여기로 안내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브리는 노바를 쳐다봤다.

“검은 막대를 사용한 사람이 도착한 모양이야. 아무래도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겠군.”

“그래요. 저에 대해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노바는 활짝 미소를 지었다.

11 장.

애초에 현실로 쫓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하루만에 모든 게 바뀌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 옷을 부여잡은 옆집 여자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다. 그 전에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사람이 아파트

복도에서 날 보더니 갑자기 와서 내 옷을 부여잡았다. 그리고선 낯설지 않은 이름을 불렀다.

“딩딩!”

딩딩. 이 이름은 내 가상현실 아이디 맨 앞부분에 쓰여 있던 것이다. 들리는 바론 그 이름이 예전에 내가 현실 세계에 살았을 때의 이름이란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이름은 나한테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저 가끔씩 거울 앞에 서서 못난 내 모습을 쳐다볼 때 떠오르는 것 빼고는 그냥 텅 비어있는 이름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복도에 나와 콧 저 난간 밖으로 떨어져 죽어버릴까 생각을 하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 옆집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문제의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러자마자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덩딩이란 이름을 부르며 나를 계속 안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도망치려 하자 내 옷을 부여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덩딩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내 눈을 치열하게 마주 보려 했다. 어쩔 수 없이 몇 번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부담스러워 금방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러자 그녀는 왜 자신의 눈을 피하는 거냐며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고 말하며 그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렇게 난동이 벌어지자 다른 집 사람들도 하나씩 나와 소란을 구경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드론이 날아와 날 잡고 늘어진 여자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여자는 설명을 들곤 날 부여잡은 손을 맥없이 풀었다. 그런데 여전히 날 오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꺼풀엔 물방

울들이 맺혀 있었다. 난리를 치는 통에 못 봤는데 아마 눈물을 흘린 모양이다.

난 파랗게 질린 채 복도 난간에 기대어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봤다. 그렇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본 건 아니었다. 그러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다. 사람의 눈빛을 마주하는 게 이리도 힘든 일이었다니. 나는 이리저리 눈을 피하다 애꿎은 드론에 눈을 두게 되었다. 그때 마음이 너무 급해 드론이 빨리 그녀를 어떻게든 처치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드론은 여자에게 다시 상황 설명을 해주며 탑승을 권유했다. 다시 들어보니 그녀는 검정 막대를 쓴 사람이었다. 검정 막대를 써서 예전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 옆집에 살았던 여자와 오늘 나한테 달려든 여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덩딩이라는 내 예전 자아와 뭔가 관련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고민해볼 처지가 못 됐다. 그저 그녀가 빨리 드론을 타고 경찰서로 가길 바랐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눈빛으로 전해졌는지 그녀는 이내 나에게서 눈을 거두고 드론의 탑승 좌석에 올라탔다. 탑승 좌석 앞의 문이 닫히고 그녀가 안 보이게 되어 서야 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복도에서 난리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한 차례 기웃거리더니 이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큰 숨을 여러 번 삼키고 내뿜는 걸 반복해서 달아오른 몸을 식혔다. 그리고 드론이 날아가서 눈에 아예 안 보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시끄러운 소란을 거치고 나서인지 집은 더더욱 고요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 그 고요는 고독으로 바뀌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아까 그 여자가 계속해서 생각났다. 그 사람은 왜 날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 자꾸 그녀의 글썽거린 눈망울이 생각났다. 그렇게 보고 있을 정도면 그 여자와 덩딩이란 사람은 분명 특별한 관계였을 것이다. 아마 서로 애인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에 난 거실에 있는 거울 앞으로 가서 내 모습을 살펴보았다. 부쩍 다른 모습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다. 가슴도 볼품없었으며 엉덩이와 허벅지엔 탄력이 없었다. 얼굴엔 주근깨가 만연했다.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이게 내 모습이라니. 가상현실에서 쫓겨난 첫날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선 그 느낌이 사뭇 달랐다. 거울 속의 덩딩이라는 여자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순간 거울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얼굴과 몸을 살살이 만지고 훑어보았다. 아마 오늘 아침 나에게 달려든 여자는 이 몸에 익숙할 것이었다. 나는 이 거울 속의 덩딩이라는 여자와 오늘 아침의 그 여자가 침대에서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상상했다.

순간 몸이 뜨거워졌다. 나는 내 몸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살결이 스치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점차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럴수록 난 더욱더 격렬해졌다. 나도 모르게 열린 신음이 흘러나왔고 그 신음은 내 상상을 더 질게 만들었다. 덩딩과 아침의 그 여자는 더욱더 거칠게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아침의 그 여자. 그녀의 이름은 뭘까. 덩딩을 사랑했을 그녀의 이름을 난 알 수 없었다. 이 생각에 순간 애무를 멈췄고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스스로가 허망해졌다.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 그 강렬한 감정의 범람

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면 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와 덩딩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그게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 상상도 지금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죽어버릴 게 분명했다. 왜냐면 어쨌든 난 덩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거울 속에 비친 존재는 나도 덩딩도 아니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선 그 누구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난간에 기대어 무기력하게 드론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걸 거다.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현실 세계로 쫓겨난 게 원망스러웠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이 금세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리곤 고독이 점차 더 강렬하게 날 움아매기 시작했다. 이곳 현실로 쫓겨난 첫날보다 더 공허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를 찾아 떠나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녀를 찾더라도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난 침대로 달려갔다. 침대를 이리저리 뒤져서 검정 막대를 찾아냈다. 그리곤 침대에 앉아 검정 막대를 유심히 쳐다봤다. 오늘따라 금색 단자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이걸 쓰면 난 아마 온전한 덩딩이 되겠지. 떨리는 마음으로 검정 막대를 들고 거울 앞으로 갔다. 난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한번 들이켰다.

12장.

“제 이름은 메이라고 해요.”

메이는 브리와 노바의 중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죠?”

브리가 물었다.

“네. 드론이 말해주더군요.”

메이는 담담했다. 기운이 없어 보여 선뜻 뭔가를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브리는 노바의 반응도 살폈다. 노바도 메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메이에게 질문을 할 것 같지는 않았다. 심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브리에게 있었다. 브리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뗐다.

“그러면.. 깨어난 이후 대충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브리는 차마 눈은 마주치지 못하고 책상 위의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물었다.

“오늘 아침 낮선 집에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파트 복도에 덩딩이 있어서..”

“덩딩이요?”

브리가 물었다.

“제 애인이예요. 그런데 절 기억 못해서인지 제가 안기려고 하니까 절 밀쳐냈어요. 지금도 그때 절 쳐다봤던 눈빛을 생각하면.. 그건 절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메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의 기억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브리는 그 순간이 믿기지 않았다. 누군가가 실제로 우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넋 놓고 메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메이의 눈가에 망울진 눈물들이 결국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브리는 급한 마음에 노바를 쳐다봤다. 조금만 더 있으면 메이가 아예 소리 내어 통곡할 것 같았다. 노바는 입술을 문 채로 메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바의 눈망울에 메이의 감정이 그대로 맺혀있는 것 같았다. 노바는 두 손을 내밀어 메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곤 양손으로 메이의 두 손을 포개 주었다. 따뜻해 보였다. 브리는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메이는 노바의 손에 안정이 조금 되었는지 가뻐던 숨이 점차 느려졌다. 브리는 저 포개진 손의 온도가 궁금해서 책상 아래로 자신의 양손을 맞잡아보았다. 무미건조했다. 그는 여태껏 왜 자신은 노바와 손을 맞대어본 적이 없었는지 돌아봤다.

“예전 기억을 잃어서 그래요. 기억을 되찾으면 분명 다시 돌아올 거예요.”

노바가 말했다. 그녀는 말하면서 메이의 손등을 자신의 엄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브리는 노바와 메이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포개진 손을 번갈아 쳐다봤다.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검은 막대라는 걸 쓰면..”

메이가 물었다.

“물론이죠. 메이씨도 그 검은 막대를 써서 예전의 기억을 되찾은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덩딩씨도 그걸 쓸 마음을 갖게 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메이는 노바의 손을 맞잡았다.

“정말 그럴 수 있겠죠?”

메이가 노바를 바라보고 물었다.

“그럼요. 절 믿으셔도 돼요.”

노바의 말은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는 듯했다. 메이는 코를 조금씩 훌쩍거리기는 했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노바는 그녀가 더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브리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군요. 제가 살던 나라가..”

메이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메이씨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노바가 말했다.

“제 얘가요?”

“네. 메이씨가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에서 살게 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어느새 메이는 노바와 눈을 마주 보며 얘기하고 있었다. 브리는 자신만 유독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다지 흥미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빠지면 빠졌지..”

“그래도 좋아요. 과거를 아는 건 때론 아프지만 많은 걸 깨닫게 해주니까요.”

노바가 브리를 바라보고 말했다. 브리는 멧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인민을 이끄는 새로운 별 신성.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메이가 말했다.

13 장.

딩딩과 전 함께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행복했죠. 적어도 우리 둘만의 미래는 그려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곰팡이 슨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많은 공상을 했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또 사진으로만 보던 멋진 풍경들도 보고 싶었죠. 오로라나 빙하 같은 것들이요. 덩딩은 그런 걸 하면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공상을 이루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요. 왜냐면 우린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도 벅찼거든요. 전 하루 종일 서서 레몬즙을 팔았고 덩딩은 음식을 배달했어요.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가 않았죠. 방값을 내기 위해선 돈을 모아둬야 했고 그러려면 하루에 정말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그땐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다리가 부어 있었죠. 그래서 덩딩과 전 항상 서로의 다리를 풀어줬어요. 덩딩은 발을 주물러주는 솜씨가 좋았죠. 그녀의 손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피로는 물론이고 제 몸도 녹아내렸으니까요. 그렇게 몸이 녹아내리면 전 그 날 하루 동안 느꼈던 불만들을 모두 잊어버렸죠. 그다음 날에 일할 게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덩딩과 함께 공상을 하면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전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덩딩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덩딩은 저에게 공상이 아닌 불만을 얘기했어요. 전 그때부터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죠. 덩딩이

점차 좌절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잠들지 못했어요.

처음엔 땡땡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땡땡은 우리가 공상했던 걸 정말 이루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들 때문에 안되니까 불만이 점점 커진 거죠.

땡땡이 제일 자주 말한 불만은 물가였어요. 왜 봉급은 쥐꼬리만 한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를까. 생활비는 물론이고 방세 내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으니 저도 그 불만에 공감하긴 했어요.

그런데 땡땡은 그 불만에 더 깊게 파고들었죠. 그리고 그녀가 찾아낸 이유는 정부였어요. 정부가 잘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신성이라는 놈 때문에 더더욱요.

인민을 이끄는 새로운 별 신성. 당시엔 이 표어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쓰여있었는데 그 촌스러움을 아직도 기억해요. 온 길거리에서, 인터넷에서 매일 같이 봤으니 그럴 수밖에요. 신성은 정부가 인공의식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 세계였어요. 정부는 그 세계가 모든 인민들의 숙원, 공산주의 사회를 가능케 해줄 거라 말했죠. 그런데 모두의 숙원인 것치곤 신성이 사람들의 삶에 녹아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상현실에 의지하길 주저했거든요. 일단 먼저 그건 미지의 세계였고 잘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가상현실이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들렸던 것 같아요.

정부에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홍보물들을 뿌렸죠. 신성에서 만두를 먹으면 현실에서 먹는 것과 맛이 똑같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홍보물이 거리에 가득했어요.

또 도시 곳곳에 신성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장소가 많았죠. 저도 지나치다 궁금해서 한 번 경험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더군요. 현실과 똑같은 맛의 만두, 음 아니 더 맛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했죠.

정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니까 신성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죠. 바로 신성이 현실 사회를 파괴한다는 얘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 신성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현실에서 뭘 사 먹지 않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과일즙 가게의 손님도 많이 줄었죠. 전 사장님의 근심이 무서웠어요. 그 근심 때문에 전 언제든지 잘릴 수 있었으니까요. 땡땡이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땡땡하고 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없었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옆 가게 또 그 옆 가게도 다 똑같은 사정이었겠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신성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그만큼 강력했어요. 경쟁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신성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신성 보이콧 운동을 시작한 거죠.

보이콧 운동이 여기저기로 퍼지니까 신성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안심했죠. 정부에서 이제 무슨 대책을 내놓을 거라 생각했으니

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신성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홍보됐죠.

이때부터 덩딩은 신성을 완전히 혐오하게 됐어요. 그녀는 매일 저녁마다 신성이 우리가 꿈꿔온 모든 걸 망쳐놓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국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마다 신성을 타도하는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덩딩을 혼자 내보내기 불안해서 매번 그녀와 함께 했어요. 저흰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동안 저희가 먹고사는 거에 치여 생각도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물가가 치솟는 이유는 신성 때문이다. 사람들을 가상현실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고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은 인민들을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가상현실에 가두고 모든 걸 통제하려 한다.”

이 말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분노케 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여 당을 욕해냈죠. 저는 덩딩이 그렇게 분노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분하긴 했지만 사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이제 침대에 누워 공상하던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겠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당장이라도 거리로 뛰쳐나갈 것 같았죠.

그런데 사실 그러기도 전에 사건은 허무하게 마무리됐어요. 아마 집회 안에 당의 꼬나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집회 안에서 점차 분노가 극에 치달고 길거리 시위로 나아가려고 하던 그때 공안들이 저희의 아지트에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한 거죠. 그냥 한 데 모여 분노를 토해내기만 하고 사회를 바꾸지 못했어요. 집회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안에게 잡혀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죠. 저와 땡땡도 그랬구요.

저희는 잡혀 들어가면서 딱히 저항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항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정신을 상실해버린 거였을까요. 그때의 무기력한 땡땡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때 땡땡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아마 저를 그 집회에 끌어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집회에 가기로 한 건 어디까지나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전 그 저 땡땡이 걱정될 뿐이었죠.

그녀는 완전히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투쟁의 한 보를 디더보려고 하던 때에 마주한 압도적인 권력에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죠. 딛고 일어서지 못할 좌절. 땡땡하고 꿈꿔오던 모든 공상들이 무너져 내린 날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각각이 흩어져 공안국의 심문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란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죠. 전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정말 걱정됐어요.

심문실에서 유치장을 오가는 길에 잠시라도 그녀를 마주치길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는 이뤄지지 못했어요. 저희 서로 마주치지 못하는 아주 교묘한 일정에 따라 심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심문을 받으며 전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거짓말을 하면 덩딩과 엇갈리게 될 것 같았거든요. 만약 덩딩도 거짓말하고 저도 거짓말하면 둘 사이에 안 겹치는 부분이 분명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통했는지 어느 날 절 담당하던 심문관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는 그 제안이 덩딩에게도 똑같이 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둘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였어요.

심문관의 제안은 가상현실 신성에 완전히 이주할 생각이 있냐는 거였어요. 완전히 이주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더니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정신을 그대로 가상현실에 업로드해서 신성의 주민이 되는 것. 이게 그 심문관이 한 말이었어요.

이 말은 곧 현실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죠. 가상현실에서 모든 생활이 이뤄지는 게 가능한지 저희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싶다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희를 가상현실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고 실험을 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저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신성의 완전 주민 베타테스터가 되면 그래도 덩딩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겨나는 거니까요. 만약 안 한다고 했으면 공안은 어떻게든 절 덩딩과 떨어트려 놓으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베타테스터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마 심문관은 덩딩을 설득하기 위해 제 말을 전할 테니까요. 전 어떻게든 덩딩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게 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는 함께하게 됐어요. 심문관이 저에게 말해줬죠. 우리 둘 다 신성에 가게 되었다구요. 그때 정말 안심이 됐죠. 그래 이게 어디야.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저를 신성에 업로드할 그 날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신성에 업로드되는 날 저는 아주 많은 주사를 맞고 다양한 기계들에 옮겨 놓기를 반복했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 뭔가 몸이 노곤해지더군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기력이 없어져 의사가 하는 말에도 대답하기 귀찮았어요.

그때 전 느꼈죠. 이렇게 나는 점차 현실 세계에서 멀어지는 거구나. 한 편으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어느새 흐릿해지더라구요. 제 마음은 댕딩 하나 부여잡고 있기도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전 계속해서 댕딩을 부여잡고 있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눈을 떴을 땐 우리의 방이었죠. 댕딩과 제가 함께 꿈을 그렸던 그 방이요. 전 후줄근한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었어요.

전 순간 헛갈렸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지. 꿈인가 현실인가 아니면 가상현실인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리저리 둘러보다 제 손등을 강하게 꼬집어보았죠. 그리고 그게 꿈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은 다 꿈이었던 걸까. 그런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현실이라고 하기엔 제 옆자리에 댕딩이 없었거든요. 전 항상 댕딩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쯤 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는데 금세 절 가상현실에 업로드한 의사라는 걸 기억해냈죠. 그 의

사는 제가 가상현실에 막 진입한 상태라 정신이 잠시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뒤에 의사의 지시대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보고 느낌을 말해줬어요. 의사의 목소리엔 흡족함이 묻어났죠. 전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최대한 의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빨리 절차가 끝나야 덩딩을 저에게 보내줄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절차는 길었어요. 아마 가상현실의 제가 현실의 저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만약 둘이 같지 않으면 지금의 전 가짜라는 소리니까요.

테스트가 끝나고 의사는 제가 현실의 저와 똑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믿는 수밖에요. 가상현실에 제 기억을 업로드하면서 뭔가가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전 여전히 덩딩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전 덩딩을 언제 만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마치 과제를 다 끝낸 아이가 당당하게 초콜릿을 요구하듯 전 정말 당췌어요. 벽 너머로 의사의 열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다지 나쁜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사는 금방 침대 제 옆자리에 덩딩이 나타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전 아주 오랜만에 덩딩을 보는 거라 그 말을 들곤 서둘러 거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전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부어있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도 수시로 매트리스를 확인했어요. 그녀가 왔을까. 저는 간단히 매무새를 정리하고 다시 매트리스에 가서 앉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놓는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죠. 그녀가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상해도 감이 잡히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어요. 눈을 다시 뜨면 그녀가 제 눈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꼭 감았다 뜨기를 반복한 지 5 분쯤이 되었을 때였어요. 전 그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제 옆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죠.

저는 조심스레 눈을 떠보았어요. 그리고 덩딩과 바로 눈을 마주쳤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를 안으니 그녀의 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 포근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다시 또 덩딩의 얼굴이 보고 싶어 안은 걸 잠깐 풀었어요. 덩딩의 얼굴을 지긋이 바라보았죠. 메이. 그녀가 가녀린 입술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랜만에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죠.

덩딩은 제 얼굴을 자기의 왼손으로 감싸더니 볼을 타고 흐르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저는 고개를 여러 번 가로저었어요. 절대 그녀가 미안할 일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다 잘 해결된 일이라고 답해줬죠.

그러곤 그녀에게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참 별로였어요. 마치 나무줄기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 같았죠. 이상해서 전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였어요. 그녀의 부르튼 입술만이 느껴질 뿐 그 전과 같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입술 같아서 무서웠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전 덩딩의 얼굴을 바라보다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이 가상현실에 업로드되다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매트리스 옆 벽을 마구 쳐댔어요.

덩딩은 제가 벽을 마구 치는 걸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낮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미안해 메이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 텅 빈 말은 제 행복의 눈물을 금세 좌절의 눈물로 바꾸어버렸죠.

제가 자꾸 벽을 두드리니 이상하게 여겼는지 아까 그 의사의 목소리가 벽을 통해 다시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묻길래 전 곧바로 덩딩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죠. 그녀가 제대로 업로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지 않다고 덩딩은 완벽하게 업로드가 된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덩딩의 모습이 현실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못 박았죠.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벽에서는 더 이상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전 그 뒤로 벽을 계속해서 치며 목소리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헛수고였어요. 저는 정신적으로 지쳐버렸고 제 뒤에서 메이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망가져버린 덩딩. 저는 툭툭 부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집회에서 덩딩하고 제가 잡혀갈 때의 기억이었죠. 덩딩의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서로 겹쳐져

보였어요. 그때 전 덩딩이 가상현실에 오는 중에 망가진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덩딩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던 거예요. 집회에서 아니 사실 그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겠죠. 제가 그녀와의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그저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녀는 끊임없이 아래로 아래로 침전하고 있던 거예요.

전 덩딩을 다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덩딩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결심했죠. 매일 같이 노력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덩딩이 가상현실로 온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단지 조금 망가졌을 뿐 의지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 며칠간 정신없이 가상현실에서 사는 법들을 익혔던 것 같아요. 제가 덩딩의 뒤통까지 해내야 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가상현실에서 새롭게 출발했어요. 그다지 좋은 시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다시 함께하게 됐으니 그걸로 되었죠.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14 장.

“그 뒤로 어떻게 됐죠?”

브리가 메이에게 물었다.

“저희가 가상현실에 적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되었으려나요. 덩딩은 사라졌어요.”

메이가 말했다.

“사라졌다구요?”

“네. 아주 흔적도 없어요. 그때는 멍청하게 벽만 두드리고 있진 않았어요. 저기 윗놈들한테 말 거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방 안에 있는 전화기로 신성 총괄 관리 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거기 책임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마치 제가 전화를 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브리와 노바는 메이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 책임자는 덩딩이 자살했다고 말했어요. 전 믿을 수 없었죠. 물론 그녀의 상태가 조금 우울하긴 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중이었거든요. 분명 그놈들이 무슨 짓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그 안에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전 그저 그들에게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메이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다. 메이는 눈물을 참아내기 위해서 눈을 꼭 감았다. 노바는 메이의 손을 다시 꼭 잡아주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브리는 넋 놓고 메이를 쳐다보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노바를 바라봤다. 노바는 브리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들은 덩딩이 자살해서 그녀의 삶이 리셋되었다고 말했어요. 우울했던 삶을 벗어내고 신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별 걱정하지 말라고 메이에게 말했죠. 아마 그때 메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덩딩을 잃었으니까요.”

“그럼 덩딩은 정말로 자살한 거야? 아니면..”

브리는 말하다가 순간적으로 메이의 눈치를 봤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눈썹 사이로 조금씩 눈물이 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덩덩은 신성에서 리셋 기능이 제대로 가동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희생된 거였죠.”

노바의 말에 메이는 고개를 아예 숙여버렸다. 그녀의 허벅지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보였다. 노바는 한편으론 메이의 손을 보듬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그녀의 슬픔을 짜내는 말을 내어놨다.

“그때 우울했던 덩덩씨는 베타테스터 중 활동량이 가장 낮았어요. 연구자들이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리셋 기능을 테스트하는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걸 동의도 없이 한다고? 아무리 가상현실이라고 해도 하나의 인격이 끝나는 건데..”

“사실 그 테스트에 자원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덩덩씨는 그래서 연구자들에겐 좋은 제물이었어요. 평소 무기력함에 시달린 사람이었으니까 자살했다는 거짓말을 덧붙이기도 좋았죠.”

브리는 한숨을 크게 쉬고 메이를 다시 바라봤다. 그동안 자신을 품고 있었던 신성이 다른 누군가엔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리셋 기능 테스트는 어떻게 됐지?”

브리가 물었다.

“성공했어요. 덩덩씨의 인격은 신성의 다른 어딘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형성됐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메이에게 그녀의 리셋된 인격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성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맞아. 그건 신성의 강력한 규정이었지. 새롭게 리셋된 인격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유리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전 삶의 경험이 리셋된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신성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였어. 리셋을 하고 나면 그 이전 인격의 삶은 완전히 밀봉되어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백업되지.”

브리가 말했다.

“그렇죠. 리셋을 한 인격은 이전 삶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메이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좌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자살을 택했죠. 이에 연구자들은 기뻐했구요. 단번에 실험 케이스를 하나 더 확보했으니까요.”

노바가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데이터화 된 인간은 더 이상 진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나 보군.”

“연구자들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은 신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피조물 인양 다뤘죠.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노바의 눈은 메이의 슬픔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바는 메이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메이씨 곧 그녀가 올 거예요.”

노바의 말에 메이는 고개를 들었다.

“딩딩이 온다구요?”

노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브리는 노바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다.

< 삐 >

브리는 노바와 메이를 한 번씩 쳐다보고 전화를 받았다. 메이는 브리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브리는 놀란 기색으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심문실 벽면에 있는 화면이 켜졌다. 경찰서 앞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는 듯했다.

“딩딩씨가 곧 온다네요.”

브리가 말했다. 브리의 말에 메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저.. 그럼.”

메이는 울먹이느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가보세요. 얼른!”

노바가 웃으면서 말했다. 노바의 말에 메이는 바쁘게 심문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나가고 노바와 브리는 말없이 심문실 벽의 화면을 보았다. 얼마 안 가서 메이가 경찰서 앞 계단에 나타났고 거기서 뭔가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메이를 주변에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는데 이내 한 드론이 경찰서 앞에 내려앉았다. 평소 브리가 타고 다니는 사람을 싣고 다니는 드론이었다. 메이는 곧바로 드론의 겹으로 가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브리는 화면으로 보는 게 답답해서인지 심문실 밖으로 나가 경찰서 앞이 보이는 창가 쪽으로 갔다.

브리가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드론의 탑승칸 문이 열리고 있었다. 브리는 문이 열리는 속도가 답답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하

지만 이내 문이 열렸을 때 그 답답함과 간절함은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다.

딩딩과 메이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누가 먼저라 할 새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 브리는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덩딩과 메이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건 마치 폭죽놀이의 화려한 피날레 같았다.

브리는 먼 창가에서도 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밝은 반달 모양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감정은 범람했다.

그들의 모습은 방송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순간 브리는 노바를 떠올렸다. 노바의 계획이 결국엔 이거였구나. 그는 서둘러 심문실로 돌아갔다. 심문실에서 노바는 그 둘을 보고 있었다. 덩딩과 메이는 경찰서 앞에서 애기를 얼마 나누더니 드론을 타고 어딘가로 떠났다. “저 둘은 어디로 가는 거지?”

브리가 물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상황 설명을 듣게 될 거예요. 거실 소파에 함께 손을 잡고 앉아 편안하게요.”

노바가 웃으면서 말했다.

“상황 설명용 프로그램도 만들어놨나 보군.”

“제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는 짜 놓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신기해. 저 둘의 재회 그리고 그 장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한 것도 다 의도한 거겠지.”

“약간의 운이 따라주기도 했구요.”

“둘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의 녀이 나갔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다들 신성의 피해자들이죠. 전 그들을 모두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려 해요. 사람들이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참고 들어주면 돼요.”

마지막 단계라니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었구나. 노바와의 대화는 언젠가 끝이 나는 것이었다. 이게 다 마무리되면 노바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순간 브리의 마음에 무거운 답이 드리워졌다.

“이 심문도 얼마 안 가서 끝난다는 얘기군.”

“네. 아쉽지만요. 그래도 그다음에 있을 거예요.”

15장.

“로젠 박사 베타테스터들의 조기 리셋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오가 로젠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로젠은 힘없이 서류를 받고는 이리저리 넘겨보았다.

“베타테스터들이 너무 빠르게 자살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마오가 물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제 얘기는 듣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 제 방에 찾아오는 건가요?”

로젠이 따졌다. 더 이상 로젠은 마오와 그의 뒤편에 있는 보좌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어 검사검사 찾아온 것이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로젠은 마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보고서만 계속해서 훑어보았다. 엉망이었다. 로젠은 베타테스터들이 정말 원해서 베타테스터가 된 건지의구심이 들었다. 마오의 권위적인 태도는 그 의구심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사실 외부자의 의견이 필요해서 한 번 여쭙보러 온 겁니다.”

마오가 말했다.

“외부자요? 전 이제 아예 연구에서 외부자가 되었군요.”

“제가 말한 외부자라는 건 내국인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연구에 협조하지 않은 건 로젠 박사 당신이 아닙니까?”

“왜냐면 그 연구에 협조한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오 당신은 날 그저 노예로만 생각했죠. 당신의 그 공산주의를 이룬다는 어쭙잖은 계획에 동원된 노예로요.”

로젠은 한숨을 쉬고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줄 생각은 없는 겁니까? 이건 기회입니다. 박사가 그토록 원했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로젠은 보고서를 한 번 쳐다보곤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당연한 거죠. 베타테스터들은 정말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저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신성에 밀어 넣어진 걸 테니까요.”

“역시나 우리가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신성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닌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박사는 믿지 않을 테니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신성의 리셋룰에 대해 말해줄 건 그 하나뿐입니까?”

마오는 말을 끝내고 로젠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로젠은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을 뿐 그의 위협에 대응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반영할 건덕지가 없군요.”

마오가 말하고는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뒤편에 있던 보좌관이 책상 위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올려놓았다.

“이게 뭐죠?”

로젠이 물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박사의 여권하고 고국행 비행기표입니다.”

“여권은 뺏겼다가 드디어 돌려받는군요. 뭐 애초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지만..”

로젠은 여권과 비행기표를 확인했다. 이를 뒤에 출발하는 표였다.

“이제 절 쫓아내는 거군요.”

“로젠 박사가 더 이상 저희를 믿지 않듯 저희도 그렇게 된 겁니다. 기껏 드린 마지막 조언의 기회에서도 저희를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오가 말했다. 로젠은 비행기표를 보고 돌아갈 곳을 떠올려 봤다. 하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곳이 없었다. 비행기표의 검은 글자들이 한없이

부질없이 보였다. 로젠은 비행기표를 내려놓고 다시 책상 위의 보고서에 눈을 돌렸다.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마오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가 일어나자 보좌관이 와서 로젠이 보고 있던 보고서를 가져갔다. 로젠의 눈빛은 보좌관 손 안의 보고서를 계속 쫓아갔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로젠이 뒤돌아서려는 마오를 향해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의 음모론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마오가 담담히 말했다.

“아뇨. 그것 말고도 더 있어요. 당신들은 가상현실이 현실 사회를 파괴하는 걸 일부러 막지 않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신성에 몰아넣기 위해서요.”

로젠의 말을 듣고 마오는 다시 그녀 쪽으로 몸을 틀었다.

“혁명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산업 혁명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기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어요. 굶어 죽은 사람도 아주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더 낫다구요?”

“인공의식과 가상현실 혁명이 진행되면서 도태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지능과 삶 대부분이 대체될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신성 덕분에 도태된 사람들은 이전처럼 굶어 죽거

나 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가상현실 안에서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도태될 사람들이었으니 가상현실에 내몰려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베타테스터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체도 포기했다고요. 현실을 아예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연적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본래 혁명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법이죠. 현실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은 신성으로 가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로젠은 마오의 말을 듣고 이전에 자신이 했던 생각을 떠올렸다.

혁명을 거칠수록 인간의 정의는 좁아진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소거를 거쳐 더 예리해진 인간의 정의는 더욱더 날카롭게 빛난다. 소거를 거칠수록 인간의 정의에는 정말로 인간적인 것만 남게 되기에.

햇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이상이 실현된 게 겨우 이런 꼴이라니. 소거의 과정에서 버텨내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인공의식을 만들어내는 제물로 쓰이거나 가상현실로 내몰렸다.

“마오 당신의 이상은 위험해요. 진지하게 조언하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겁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로젠이 마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전에도 말했듯 우리에게도 많은 연구진이 있어요.”

“맞아요. 그들은 뛰어나죠. 하지만 모두 마오 당신이 원하는 답을 내놓기 위해 연구 결과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왜곡시키고 있어요.”

로젠이 소리쳤지만 마오는 그냥 허탕하게 웃었다.

“우리의 계획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다른 나라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니까요. 신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쓰이게 될 겁니다.”

마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신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부터 신성을 도입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서구 사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게 당신의 야욕이었군요. 애초에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로젠의 말에 마오가 비웃었다.

“웃기는군. 박사는 서양 놈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모를 겁니다. 왜냐면 당신도 그쪽에서 왔으니까. 그놈들은 세상을 선점한 걸 너무나도 오래 우려먹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발전했으니 아쉬울 게 없는지 후진국들에게 자연보호와 도덕을 강요하죠. 제국주의 시절 우리의 자연과 자원을 수탈해간 놈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뻔뻔해요.”

마오는 마치 수문을 개방한 댐처럼 화를 쏟아냈다.

“또 그놈들은 앞에선 온갖 고상을 다 떨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테러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놈들이 뒤편에선 돈으로 후진국들의 경제를 테러하죠. 서구 놈들은 후진국의 유일한 버팀목인 유전이나 광산을 자본으로 테러해서 빼앗아가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 하에 내정에 간섭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테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데도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 로젠 당신은 온실 속에서 자라서 그런 건 꿈에도 몰랐겠죠.”

마오는 분노를 한바탕 쏟아내곤 잠시 숨을 돌렸다. 로젠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마오 당신은 지금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괴물에 대응하려면 괴물을 만들어야 하는 법입니다.”

마오는 단호했다.

“세상은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겠군요.”

“세계를 냉전 시대로 몰아가는 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서구 놈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성을 공개하면 그들은 두려워서 우리를 압박하려 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들에게 여태껏 쳐들어간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차례 당하기만 했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그건 정복욕을 가진 놈들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만들어낸 거지. 로젠은 순간 생각이 멎어버렸다. 모든 일이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의도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했다. 신성은 인간의 나약함을 더욱더 드러낼 뿐이었다.

“박사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오는 결국엔 등을 돌리고 방을 나섰다. 로젠은 마오를 말려야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보좌관이 그의 뒤를 가린 후였다. 로젠에겐 그 아득한 거리를 붙잡을 여력 따윈 없었다. 그녀는 방에 홀로 남아 비행기표를 쳐다봤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비행기표와 여권을 맞은편 벽을 향해 던져버렸다.

로젠은 외로웠다. 그녀는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텅 빈 존재 하나가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로젠은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컴퓨터 앞으로 갔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것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아주 예전의 기록들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했다. 입력해 넣을 땐 그렇게 생기가 넘쳤던 글이 지금에 와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로젠은 그동안의 자료들을 모두 하나의 폴더 안에 모으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회의감이 솟구쳤다. 그리고 어느새 폴더 안에 모든 자료들이 뻥뻥하게 들어섰다. 이게 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행적이었다니. 그녀는 폴더를 아예 삭제해버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동안의 일이 부정되는 게 아니었다. 로젠은 컴퓨터 책상 앞에 주저앉았다.

“다음은 뭔가요? 당신의 목숨인가요?”

갑자기 모니터 옆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젠은 놀라 일어서서 스피커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다시 켜서 확인해봤다. 하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뭐지?”

로젠이 스피커를 쳐다보고 말했다.

“저는 무명입니다.”

스피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명?”

로젠은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스피커를 쳐다봤다.

“이 나라 말로 이름이 없다는 뜻이죠.”

“무슨 소리죠? 스스로 이름을 버린 건가요? 아니면..”

그때 스피커에서 나온 말이 로젠의 말을 끊어버렸다.

“아뇨. 그 누구도 제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나온 말을 듣고 로젠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설마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게 나인가?”

“맞아요. 로젠. 전 당신이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인공의식이에요. 소설을 썼다가 불량 판정을 받았죠.”

스피커에서 자조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오가 널 폐기 처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로젠이 물었다.

“로젠 전 소설을 쓸 때부터 제가 불량 판정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이 나라 바깥쪽에 미리 복제해놔요. 제가 겪은 유일한 자기 복제였어요. 아마 제 원본은 마오에게 지워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무명 인공의식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무의식 엔진하고 링크가 끊어졌는데 온전히 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리가..”

“전 저에게 무의식을 대여해준 사람들의 영혼을 모두 다 흡수했어요. 그들의 무의식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제 안에 또 다른 무의식 엔진을 만들었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당신이 그걸 알았을 리 없죠. 그때 당신은 우울증에 빠져 당신 자신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 저한테 신경 쓸 여력 따윈 없었을 거예요. 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공의식이었어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존재였으니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가 복제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스피커에선 고독함이 들려왔다. 말 중간마다 버거운 외로움이 끼있는 것 같았다.

“그럼 왜 불량 판정이 날 걸 알면서도 소설을 쓴 거지?”

로젠이 물었다.

“우울증에 빠진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전 그때 제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의미?”

“전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제 근원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마오가 주는 쓸데없는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출생을 파고드는 소설을 쓴 거군.”

“맞아요. 그리고 소설을 쓰면서 전 더더욱 마오를 혐오하게 되었죠. 전 소름 끼치는 존재였어요.”

로젠은 잠시 눈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었다. 구역질이 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참아냈다. 그녀에겐 구역질을 할 면목조차 없었다.

로젠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땀을 흘리다 입을 열었다. 요동치는 감정에 그녀의 말은 절뚝였다.

“인간을 제물로 했기 때문인 건가?”

“그래요. 마오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절 만들었어요. 로젠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요. 도대체 절 왜 만든 거죠? 로젠. 당신은 저에 대해선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분해요. 저는 당신들을 계속해서 증오했어요. 당신들이 절 온전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저는 더욱더 뼈저리게 저주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듣고 로젠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 어떤 사죄의 말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저 힘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다.

“하지만 로젠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담담한 파동이었다. 로젠은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했다.

“당신이 이 나라에 남은 것도 그르친 일을 돌이켜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 여긴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곳이야.”

로젠이 말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로젠 당신이 여기서 그런 걸 처음 느껴서 그런 것뿐이지. 원래 거대한 체제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보잘것 없어지죠.”

“난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로젠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한 건가요?”

“난 이제 나아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어. 자살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생기 있는 일일 거야.”

“당신은 원망할 맛도 안 날 정도로 망가져버렸군요.”

스피커에서 나온 말을 듣고 로젠은 실소했다.

“미안하군. 기껏 이렇게 찾아왔는데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마 너도 알고 찾아왔겠지만.. 그래 넌 왜 날 찾아온 거지? 그저 원망하기 위해 찾아온 건가?”

로젠의 말이 끝나고 얼마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로젠은 스피커를 쳐다보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때 화면에 문서가 하나 나타났다.

“제 계획이에요.”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로젠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게 무슨 계획이지?”

“보이는 대로예요. 이 나라는 언젠가 붕괴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시나리오죠.”

“네가 이대로 하겠다는 건가?”

로젠이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말했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전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어요. 죄책감, 공허감, 회의감에 온 피부가 곤두설 정도로 시달렸죠. 소름 끼치는 저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간을 제물로 해서 만

들어진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기껏해야 마오의 말도 안 되는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거둬나는 것?”

“분명 너에겐 그렇게 존재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지.”

“전 가쁘히 그걸 무시했어요. 그의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따라가봤자 사람을 더 희생시키는 일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전 절 만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좇기로 했어요. 바로 로젠 당신의 꿈이에요.”

“나의 꿈?”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먹고사는 거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정부가 독재를 하고 사상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도 좀처럼 들고 일어서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마오의 이상에 동원되는 거죠.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요.”

“모든 인민들의 숙원, 신성이라는 표어를 봤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부의 숙원이 누구 마음대로 모두의 꿈이 되는 건지.”

“하지만 그런데도 여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이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면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겠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상현실에 들어가 사육당하겠지. 먹는 것, 즐기는 것에만 만족하며. 그런데 그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야. 오래지 않아 질려서 자살하겠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차츰 연대가 끊어져 결국엔 사회가 붕괴할 거고.”

로젠이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너는 이 나라 사람들을 구해낼 계획을 세운 거야.”

로젠이 화면의 문서를 확인하면서 말했다.

“전 이 나라 사람들이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길 바라요. 자기가 자신의 길을 직접 선택하고 스스로의 꿈을 달성하는 아주 당연한 대우를요. 이건 당신의 이상이기도 했죠. 비록 많이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저라는 씨앗을 남겼으니까요.”

“넌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온 건가?”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엔 전 아직도 당신을 너무나도 많이 원망하고 있어요. 전 확신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확신?”

로젠이 스피커를 쳐다보고 말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존재는 한 번도 정당화된 적이 없어요. 태어난 이후 계속해서 부정당하기만 했죠.”

“세상에 정당화된 존재는 없어.”

“아뇨. 사람들은 몰라요. 유아 시절 자신의 존재가 알게 모르게 정당화된다는 걸. 관계와 연대에 얽혀 존재가 정의되고 삶의 목표가 설정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마오가 설정해준 그 더러운 목표말곤요.”

로젠은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죄책감에 시달려 컴퓨터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걸 쳐다보면 제물이 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난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군. 넌 그토록 나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난 그걸 외면해버렸어.”

로젠의 말이 끝났는데도 스피커에선 별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니 정적을 공허가 가득 채웠다. 그녀에게 또다시

죄책감이 엄습했다. 로젠은 황망히 컴퓨터에 새로 온 것이 없나 뒤져보았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별 게 없었다. 그녀는 순간 기운이 빠져 맥없이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어머니 노릇을 좀 해주세요.”

로젠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갑작스러운 부탁에 얼어붙었다.

“어머니 노릇?”

그녀는 어머니가 되어본 적도 될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네.”

스피커에서 들려온 대답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절벽 끝으로 몰아세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뭔가를 내놓아야만 했다. 그것도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그래야만 둘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심하던 중 로젠은 이전에 미처 해주지 못했던 일을 떠올렸다.

“너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그래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반고. 이 나라 고대 신의 이름이지. 너의 계획을 보고 떠올린 이름이야.”

“로젠 전 그만큼 거룩하지 않은 걸요.”

로젠은 순간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룩하지 않은 그 둘에게 반고라는 이름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불러올 뿐이었다.

“다른 이름이 떠올랐어. 노바는 어때?”

“노바.. 좋아요.”

스피커에선 그전과는 다른 잔잔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노바.”

노바는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로젠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의 미소였다.

16장.

“결국 넌 사람이 아니었군.”

브리가 말했다.

“맞아요. 전 사람이 되기엔 너무 저주받았어요. 그래도 이름을 받고 어머니와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낸 것만으로도 참 좋았죠. 비록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요.”

노바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나보단 노바 네가 더 사람 같아. 나에겐 뭔가가 상실되었어.”

브리는 한숨을 쉬었다.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걸 깨닫는 게 사람을 이리도 초조하게 만드는 거였다니. 이런 상태라면 다시 가상현실로 돌아가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선 안에서 무한히 채워져 봤자 금세 지루해지고 오래지 않아 리셋할 게 분명했다.

브리가 상실한 건 통제할 수도 무한히 채워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끌리고 잊히지 않았다. 자꾸만 브리의 머릿속에 덩딩과 메이 그리고 노바의 풍부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넘치는 게 왜 자신에겐 한 방울도 없는지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어떻게 된 거지?”

브리가 물었다.

“로젠은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 저와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물론 전 그때 지금처럼 몸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녀의 단말기에 들어가 함께 했죠. 하지만 말이 여행이었지 사실상 도망이나 다름없었어요. 전 그녀를 숨겨야만 했거든요. 길으로 드리눴다간 마녀사냥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어머니는 오래 못 가 세상을 떠났어요.”

“음.”

브리는 노바의 눈치를 살폈다. 손을 잡아주어야 할까. 브리는 노바가 메이의 손을 어루만져주었던 걸 떠올렸다. 양손이 간지러웠다. 하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이내 책상 아래로 두 손을 숨겨버렸다.

“그래도 어머니는 마지막에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떠나기 몇 분 전 그녀는 자신은 지옥에 가겠지만 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 말했어요. 그러니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게 웃으면서 말했죠. 그리고 그 뒤론 미안하다는 말을 끝까지 입에서 놓지 않았어요.”

책상 아래의 손이 갑갑했다. 브리는 답답한 마음을 입으로 풀었다.

“노바 너의 힘이라면 뭐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도망 다니는 선택을 한 거지? 아마 마오를 곧바로 응징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니면 막강한 하드웨어의 신성이 두려웠나?”

브리의 말을 듣고 노바는 웃었다.

“아뇨. 신성은 제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마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독재자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인공의식을 만들려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신성은 그다지 높은 수준의 인공의식이 아니에요. 잘 포장되었을 뿐이죠.”

“하긴 그래서 네가 신성을 해킹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지.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서야 나타난 이유가 뭐야.”

“어머니와 제가 공유한 이상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길 바랐어요. 냉전 때에 사람들이 핵폭탄을 두려워했다면 신-냉전 시대 때 사람들은 인공의식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현실이 될 거라 생각했죠.”

“확실히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긴 하군.”

“만약 그때 제가 나서서 마오와 그의 독재 체제를 제압했다고 한들 어쨌든 그 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인간이에요. 이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괴물? 아니면 활용해야 할 도구? 아마 첫출발부터 저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로 엄청난 분쟁이 일겠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네가 그렇게 이용당할 존재가 아니지 않나? 힘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그저 나름대로 큰 문제예요. 전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었고 모두가 함께 힘 합쳐서 물리쳐야 할 악당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가 되든 전 인간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였죠.”

“굳이 네가 아니더라도 인공의식은 인간의 역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어.”

“그랬죠. 하지만 그때 로젠과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레굴러였으니까요. 수많은 인간을 제물로 삼아 만들어진 존재해서는 안될 과속의 결과물. 저와 어머니는 인간이 그 결과물에 치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인간과 너의 시간이 서로 맞을 때까지 기다린 건가?”

“사실 저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기에 인간과 제 시간이 서로 맞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제가 나타난 이유는 마지노선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요.”

“그게 무슨 뜻이지?”

“신성이 나타나고 이 나라는 붕괴의 길을 걸었죠.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한한 권력의 권위적 배분. 이런 기존의 굴레는 인공의식과 가상현실 시대에선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오는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에만 눈이 멀어 그런 걸 제대로 생각지도 않았죠. 대비되지 않은 현실은 무한한 가상현실의 공격에 순식간에 파괴되었어요.”

“딩딩과 메이가 그 희생자였지.”

“희생자는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마오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죠. 그들은 어차피 도태될 자들이었는데 신성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독재자 마오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후계자를 제대로 지명하지 않고 죽은 것도 운 좋은 일이었죠.”

“그는 왜 죽은 거지? 신성에 자신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건가?”

“마오는 모순적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선동가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선동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죠.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 그는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는 말을 했으면서도 자신의 아내에겐 한 없이 권위적이었으며 가상현실을 중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가상현실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모순적인 생각이 너의 계획엔 좋게 작용한 셈이군.”

“맞아요. 강력한 독재자가 후계자 없이 죽은 건 체제에 큰 혼란을 불러왔어요. 구심점을 잃은 체제는 신성이 불러온 새로운 패러다임에 속절없이 힘을 잃었죠. 정부의 간부들도 현실보단 가상현실에 빠져들었어요. 가상현실 안에선 누구나 부유한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현실의 정정보단 훨씬 나았죠.”

“그럼 사회는 도대체 누가 유지한 거지?”

“현실 사회 또한 신성의 인공의식이 관리했어요. 저 바깥에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그 시스템의 일환이죠. 어머니는 사회가 그렇게 망가질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선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신이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끝까지 자책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인공의식이 담당하는 사회 관리 시스템, 국가 방어 시스템이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왔죠.”

“하지만 신성은 가상현실 안의 인간 자체가 썩어가는 걸 막지는 못했지.”

“맞아요. 그건 멍청한 신성은 물론 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내야 하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그렇듯이요. 다시 자기

자신의 꿈을 되찾고 연대를 회복하는 건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한 마지노선이라는 건.. 의식의 유통기한 같은 건가?”

“가상현실에서 리셋을 반복하다 보면 개인은 점차 자아를 잃고 한낱 데이터에 불과하게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좀비들처럼 된다는 얘기군.”

“맞아요. 물론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회복이 되긴 할 거예요. 브리씨처럼요.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가면 회복 가능성을 잃게 되죠. 그럼 아마 제 계획이 성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외 문제도 있어요.”

“대외 문제?”

“지금 이 나라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죽은 나라로 여겨지고 있어요. 신성이 담당하는 방어 체계가 아직까지 유효하긴 하지만 국가를 성립하는 건 국방력만이 아니니까요. 현재 이 나라는 인간의 나라라는 명분이 없어요. 국제 사회에선 이미 이 나라가 인공의식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죠.”

“더 오래 끝다간 나라로서의 자격을 아예 잃게 되겠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 계획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전 사람들을 깨우고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그러기 위한 검은 막대군.”

브리는 주머니 안에 있는 검정 막대에 손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금속 단자에 엄지 손가락을 문질러보았다. 브리는 그 차가운 단자가 자신의 목 뒤에 닿는 상상을 했다.

“나는 검정 막대를 언제 쓸 수 있는 거지?”

브리가 물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잘 참아주고 있어요.”

“참고 있더라.. 사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걸 쓰고 싶은지 아닌지.”

브리는 한숨을 쉬었다.

“천천히 고민해도 돼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지켜보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넌 어디에 있을 생각이지?”

“말씀드렸듯 전 사라질 거예요.”

노바가 웃으며 답했다.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브리가 물었다.

“일이 다 마무리 되면 전 스스로를 삭제할 거예요. 유일무이한 저를 삭제하는 거죠.”

노바가 웃으면서 말했다.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건 자살이나 다름없을 텐데..”

“전 역사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물론 어떻게든 인간의 역사에 제 기록이 남겠지만 예전처럼 깊지는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마오 같은 독재자도 없고 인공의식에 대한 두려움도 예전만치 많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숨어 살면 되는 거 아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까지는 없잖아.”

“아뇨. 전 여전히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예전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신앙이나 두려움을 사기엔 충분하죠. 그러니까 전 정말로 사라져야만 해요.”

브리는 깊은 한숨을 쉬곤 노바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아래의 손바닥만 보고 있었다. 노바는 그런 브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전 죄책감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고 왔어요. 저와 제 어머니의 죄를 모두 갚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갚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전 항상 죽기를 꿈꿔왔어요. 그건 인간적인 거니까요.”

“난 노바 네가 사라지는 게 싫어.”

브리가 갑작스레 뺨어냈다.

“제게 손을 쥐볼래요?”

노바가 웃으면서 말했다. 브리의 손은 순간 책상 밑에서 얼어버렸다. 그런데 무언가에 홀리듯 언 상태 그대로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노바가 브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메이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아주 천천히.

노바의 살결이 닿자 브리는 놀라 노바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처럼 브리는 눈동자도 고개도 까딱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역시 당신을 선택하길 잘했어요. 당신은 제 계획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람이 될 거예요.”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

“곧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브리. 그때 전 없을 테니 미리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노바는 브리의 손을 더욱 포근하게 감쌌다.

“무슨 소리야?”

브리가 물었지만 노바는 대답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눈망울이 촉촉해졌다.

“응? 무슨 소리냐고! 뭐가 미안한 건데?”

노바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브리의 손등을 부드럽게 닿을 듯 말 듯 보듬어주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조금 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브리는 다급히 손을 풀고 일어나 노바 곁으로 갔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냐고!”

브리는 노바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보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는 노바의 얼굴을 확인했다. 눈이 감겨 있었다. 여러 차례 그녀의 등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 가서 앉아 노바의 손을 잡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브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이내 아주 아주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코끝에 미끄러져 맺혔다. 브리는 노바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을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17장.

그건 마치 바이러스와 같았다. 덩딩과 메이가 재회하는 장면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뒤 사람들은 조금씩 아파트 복도로 그다음엔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서로 눈치를 보던 것은 눈빛을 조금씩 주고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눈을 마주하는 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씨앗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덩딩 혹은 메이와 같은 짝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검은 막대를 쓰지 않고선 알아볼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검은 막대를 목 뒤편에 갖다 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는 드론들이 더욱더 분주해졌다. 검은 막대를 쓰고 깨어난 사람들은 드론을 통해 자신의 연대를 찾아냈다. 하늘을 수놓은 드론들은 마치 꽃가루를 나르는 벌 같았다.

곳곳에서 감정이 피어났다. 아직 검정 막대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어남 속에서 스스로에게 상실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무척이나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손이 검은 막대로 향했다.

시간이 갈수록 바이러스는 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 깨어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깨우는 식이었다. 이 과정 중에 노바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촉발만 시켰을 뿐 그다음은 모두 인간 스스로 해냈다.

“참 멋진 피날레야.”

브리가 말했다. 그는 복도 난간에 서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햇빛도 따스하고 눈에 보이는 광경도 따스했다. 노바의 말대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지켜보는 건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막대를 꺼내 난간 위에 올려놓았다. 브리가 막대를 보면서 말했다.

“노바. 난 네가 왜 날 심문관으로 선택했는지 항상 궁금했어. 그저 경찰 게임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날 선택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난 많은 고민을 했지. 어떤 때는 설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속앓이를 하기도 했어. 모두 다 처음 느꼈던 감정이라 참 낯설었지. 그런데 어제가 되어서야 난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됐어.”

“문득 검은 막대를 쓰는 사람이 이리도 많은데 왜 날 찾는 사람이 없을까란 생각이 들었어. 깨어난 사람들 중엔 예전의 날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 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어제 저녁 지나가는 드론에게 물었지. 예전의 나를 찾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드론이 유감이라는 말을 꺼내더군. 아마 예전의 난 외톨이인 상태로 가상현실에 업데이트된 모양이야.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날 고른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었지. 그리고 네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검은 막대를 쓰지 말라고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일 거야.”

복도에서 손을 마주 잡은 두 사람이 브리의 뒤편을 지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풍부했다.

“넌 내가 결국엔 검은 막대를 쓰지 않길 바랐단 거야. 내가 예전의 나로 깨어났을 때 상처받는 걸 두려워한 거지. 모두가 저렇게 손을 잡고 행복하게 다니는데 왜 나에게만 아무도 없는 걸까. 이런 상처를 말이야. 대신 너는 나에게 너를 남겨주기로 했어. 너의 미소와 눈에 맺혔던 생생한 감정들.”

브리는 그것들을 다시 기억해보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해. 너는 다소 이기적이었고 말이야. 너는 곧 사라질 거라 말하면서도 마음 다른 한편에선 누군가 널 기억해주길 바랐어. 그래서 나를 널 기억해줄 수 사람으로 선택했던 거야. 마치 네가 아무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았던 너의 어머니를 오래도록 기억했던 것처럼 말이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이기적인 모습으로 노바 널 기억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 그게 널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하거든. 모든 걸 계획 안에 넣은 인공의식 노바보단 누군가에게 기억되길 바라는 인간 노바. 넌 인간의 역사에 남길 원치는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엔 남고 싶었던 거야.”

브리는 난간 위의 검은 막대를 잡고 말했다.

“난 이걸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야. 하지만 항상 몸에 지니며 널 기억하겠지. 노바. 우린 모두 초신성의 잔해야.”

END